발행인 박 술 음
주 간 양 수 산
편집장 김 호 석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 대 학 보 사
우편번호 131
TEL ⑨ 3751(직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270

외대학보

(1958. 3. 27. 제3종 우편물 인가)
(허가 번호 제다253호)

1973년 3월 1일 발행
제 175 호

졸업 특집
<8면 발행>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문춧점

해마다 학계로 나오는 인학시험, 승자(勝者)가 있으면 패자(敗者)가 있기마련인 경쟁사회 속에 살아 오는 인간의 숙명은 오늘도 끝임없는 투쟁속에 살고있다. 12년의 교육기간을 한평이리로 뿌어 시험지에 올거놓을 학생들의 발걸음은 천지 초조하고 불안스럽기만 하고 시험, 시험, 언제나 그치려나 이 숙명의 굴레는.

대학생활의 의미
졸업, 입학에 부치는제언

사설

거울이 지나가고 봄을 맞은 푸렁이면우리들 대학은 다시한번 가족들의세대교체를 이룬다.

24일 본대학은 4년간의 대학교육을 성심히 이수한 졸업생 448명을 배출하여 사회로 힘찬 첫발짚을 옮기게 했으며 23일에는 본대학의 새로운 가족이될 835명의 신입생합격자 명단을 발표, 대학인으로써 그리고 외대인으로써의 첫한문을 열어놓았다.

금년 대학을 졸업하는 외대인은 대학생활의 4년간이 무수한 희로애락으로 점철(點綴)된, 더우기 이번 (試練) 과 상론 (倒仮) 이, 또한 극복 (克服) 이요 구되어진 마지막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깊은 감회에 젖어들것이다. 고난을 딛고 일어선 영예로운 승자의 웃 그리고에는 숨쉴한 미소와감미쩐지못한 추억들도 한 묶음 지지하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졸업이란 단차고 성실한 열매를 거두어 결실가지었었고 그 보람에서 가슴뿌듯한 것이아닐수 없다.

마지막의 의미는 시작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지금 대학을 떠나는 448명의 외대인은 한국의국어대학과는 인연을 끊을테야 끊을 수가 없는 단단한 유대를맺고 있는 것이며 이제부터 각 개개인의 사회활동은 스스로의 활약여하에따라 모교를 위한 명예일 수도 있고 오점 (汚點) 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을 떠나는 마음은 아쉬고 서운할 것이지만 깊숙히 가슴 한가운데 뿌리박고 있는 외대의 정신과 자부심만은 영원토록 간직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곧유대이요, 전통의식이요, 선후배를 잇는 고향인것이다.

대학의 교육을 실생활에 마름질 이용하여 갖진삶과 희욕을 가지고 국가사회발전에 튼튼한 디딤돌이 되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 인생을 승기찬게 살아가는 현명한 인격체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학문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졸업장을 손에 쥐는 것이 끝이 아님은 물론이다. 졸업장은 대학과정을 이수했다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지위나 권위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지식이 요구될 것인지 추측할 수는 없다. 사실 대학교육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지 같으나 간혹 대학교육이 모든 교육과정을 매듭짓는 것 같이 여기는 경우도 없지는 않는 것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3월초 새로이 외대인이 될 신입생은 대학이라는 허울좋은 이름보다 자신의 향상을 결정짓고 이에 부과되는 진지한 노력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대학이 될을, 난만한요로 가득한 환상적인 세계는 아니다.

대학생활 4년이 입생의 중요한 분기점을 이룬다는 것을 명심하여 뚜렷한 주관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대학의 자유를 누릴수 있는것 같아서이다. 물론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새 캠퍼스생활을 설계하여줬을 꾀와 재기로써 빛고나가는 것이 유익한 대학생활의 기틀이 될것이다.

1972학년도 학위 수여식
석별의 감회젖은 이문벌

배출될 학사 총 448명
영예의 수석졸업에 한인석(불·4)양

1972 학년도 제16회 학위수여식이 24일 오후2시본대학 교정에서 박술음학장을 비롯 내외귀빈.주한외교사절동학부형들이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개식사와 동시 본대학의 상징인비둘기를 날림으로써 그 막을 여는데 교무처에서 낭려진바에 의하면 올해배출되는 학사수는 총448명으로 명예의 학업성적최우수상 (창립자상) 은 평균92,5점을 획득한 한인석 (프랑스어과) 양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학업성적우수상 (학장상) 은 이한우 (타이어과) 군등 21명. 전공과목우수상 (학장상) 에서 이동선 (미이어과) 군등 21명에게 수여된바고 한다.

또한 제학시절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학생에게 수여되는 공로상 대상자는 전학생회장 노승제 (에스빠냐어과) ,부회장 최영신(도이취과) , 여학생회장 김재숙 (에스빠냐어과) ,덕의원회의 장려리 서동은 (타이어과) , 의대학교사 편집장 권영옥 (무역학과) , ROTC 연대장 주보생 오용석 (무역학과) 군등 6명으로 밝혀졌다.

한편 72학년도 본대학원의 석사학위수여는 6개과의김수남 (영) 군등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반생필 이들 새학사들은 4년간 형설의 공을 쌓던 이문동산을 떠나 사회각분야에서 활약, 외대인의 긍지를 지니게 될 것이다. 각과별 졸업생수는다음과같다.

영어과 70명,프랑스어과 33명 중국어과 10명, 도이취과 25명, 러시아어과 11명, 에스빠냐어과 36명, 일본어과 42명, 이탈리아어과 14명,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16명. 아랍어과 13명, 포르투갈어과 22명, 타이어과 11명, 베트남어과 8명, 정치외교학과 22명, 행정학과 18명,법학과 13명, 무역학과 40명, 경제학과 10명, 영어교육과 10명, 프랑스어교육과 12명, 도이취교육과 12명.

<수상자명단 5면에>

「외대일람」발간

출판공보부는 「외대일람 73년~74년도」를 3월 1일 발간한다. 본대학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외대일람」은 신입생 수강신청일에 신입생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교내 각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교부신청서를 출판공보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입생 합격자명단 발표

수석엔 무역학과지원한 김종석(경기고)군
평균 3.4대1의 경쟁율보여

지난19일 제73학년도 본대학 신입생 835명의 합격자명단이 발표되었다.

총 2877명이 응시 평균 3·4: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 13일의 입학 전형고시는 국어 영어 수학 국사 선택과목순으로 실시 예년에 비해 비교적 쉬우면서도 전반적으로 다른 출제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들 합격자중 무역학과를 지원한 김종석 (18세·경기고 출신) 군이 550점만점에 453점을 획득 영어의 수석합격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입학전형고시에서는 경쟁20명의 네델란트어과 216명의 응시자를 보여 최고경쟁율인 10·8:1을나타낸고프랑스어과는 1·8:1로 가장 경쟁율이낮았다.

교무처에서는 이번 1차합격자들에 한해 20일에 면접과 신체검사를 실시 22일오전10시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연구교수 5명선정

1973년도 본대학 연구교수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교무처에서 일월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된바에 의하면, 선정된 5명의 연구교수는 앞으로 일년간 자신의 연구주제에 관해 연구를 해, 년말에 논문 (200자 원고지 200매이상) 을 관리위원회에 제출통과되어야 하며, 통과치 못할 때는 연구를 계속하여야 한다.

복히, 이번에 선정된 연구교수는 일년간의 연구비 25만원을 지급받으며, 주말 기본 책임시간 (주당10시간) 에서 4시간씩의 감면을 받아자신의 연구주제에전념케된다.

이날 발표된 연구교수및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박규서 (영·교수) =한국어와 영어간의표현방식의차이.

조동국 (에·전임) =루우리바와 중남미의 관계.

김 덕 (정외·부교수) =중공의 대일 정책.

박병호 (경·부교수) =한국무역정책의 변천에관한연구.

서병한 (포르자·전임) =한국 외국어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초 개혁안의 구상.

재학생 등록금 작년과 동일
신입생은 2월 26일 등록 마감

1973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등록금이 사무처에서 공표되었다.

이번 제1학기 등록금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써, 단 지 해마다 학생수업료 (160원) 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한편 신입생 등록금 (입학금 포함) 은 10만 8천원으로써 작년과 거의 동액 (同額) 이며, 22일부터 25일까지 제일은행 종로지점에 납부해야 된다.

한편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기간은 22일부터 이달말일까지이며 역시 제일은행 종로지점에서 실수한다.

운동장 확장공사

사무처는 풍계휴가기간을이용, 대운동장 복판에 쌓아두었던 신축교사 지하실에서파낸 흙으로 소운동장을 메입중이다. 소운동장을메입, 대운동장을 확장하게될 이번 공사로 그동안 유휴지로 사용되지 않던 운동장을 신분활용하게 되어 좁던 넓은 푸대가 확보될 것이다.

한편, 이제까지 학교서측과 모문 파주측 일부에만 설치되었던 철조그물울전장 전립중인 학교측은 현존 철조망을 원킨철거, 전학교둘레에철조그물으로 바야흐로 하리라한다.

상징탑 개축

본 대학 상징탑을 개축한다. 사무처에서 밝힘 바에의하면 도서관 앞들에 위치한 본 대학의 교육이념과 세계로 뻗어가는 외대를 상징하는 이 탑은 현재 지상으로부터 바로 세워져 있는데이를 높이 1m의 받침대위로 올리기로 하여 참신한 모습으로 개축할 것이며 지난 15일 공사에 착수, 3월 초순 경에는완공될 것이라고한다.

일어 교원양성소 수료식
수료후 2급정교사자격증 취득

본대학 부설 일어 중등교원 양성소(일어) 의 수료식이 지난 2월3일 있었다.

이날 수료식을 마친 135명의 수료자들은 전국의 일어선택 고등학교에서 1명씩 추천되어, 18주 (72.10.2~73.2.3) 동안 본대학 양성소에서 일어및 교직과목을 이수 했으며, 수료후엔 2급 정교사자격증을 수여받게 된다.

본 일어 중등교원 양성소는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따라, 문교부의 방침으로 본대학에 설치되어, 이날 첫 수료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동문회보 봄부터계간으로

본 대학 동문회 (회장·신석근) 는 금년 봄부터 동문회보를 발행할 예정이다.

18여년의 역사와 함께 5,000여명의 졸업생을 포용하고있는 본 대학 동문회는 3월 초순 창간호를 발행, 1년에 4회계간으로 동문상호간의 친목및 유대강화와 모교발전에 협심, 동문들의 소식전달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데 지면은 바둥표이드판 8면이며 경비일체는 동문회비로 충당할것으로 알려졌다.

박회영전영어과 교수 별세

본 대학 교수로 재임하다가 지난 해 8월 인하대학교로 전임한 박회영 전 영어과 교수가 지병인 신부암으로 부평문에 지난 13일 별세했다.

박 교수는 61년부터 11년간 본대학에 재직, 외대 명장교수중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정도로 훌륭한 강의와 덕망있는인품으로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R.O.T.C51명임관

오는 20일오전11시 본대학 ROTC생들의 임관식이 육군본부 광장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본대학 루보생 51명이 소위로 임관, 28일부터 넘파고학에 입학계획는백 교육훈련실시과 일전시험실이 우수한 루보생을 수상, 그 내용은 아래와같다.

육방장관상 이주성 (E)
참모총장상 장병수 (D)
2군사령관상 이병진 (L)
6전구사령관상 김주영(D)

한편 본대학 임관생들의 별과지원현황은 동여장교 21명 보병15명 포병14명 헌병 1명등으로 밝혀졌다.

편입생 158명
학사 편입생 6명

73학년도 편입생합격자 명단이 지난 1월29일 발표되었다.

교무처에서 밝혀진 바로는 지조한 경쟁율을 보인 이번 편입시험엔 편입생 (2학년) 158명 학사편입생(3학년) 6명으로 이중 본대학과편입생은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편입생 중에는 이탈리아의 토마 안토니아놀초등대학에서 이탈리아어과로 편입한 제이 (伊) 편입생이있어 이채롭 띄었다.

학군단장취임식

지난 1월 9일 본대학 학군단장실에서는 제 8대 퍼싱선학군단장과 7대 최성백학군단장의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학장 및 내외귀빈 다수가 참석한 이자리에서 신임학군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군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임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 최성백학군단장은 훈장으로 승진 1군단포병사령관으로 전임되었다.

<신임 단장약력>

임관일자=1951. 1 종합14기 66. 7. 24 서울대 ROTC 고관반장 2년 71. 12 17 6전구 학도참모

유머란

◇72년졸업식
—캠퍼스는 벚나도 학문을 떠나거는 말기를—
◇신입생합격자발표
—과거는 일독할수록 참한 한 것—

<낙방자의 변>

신축교사신학기 개방
언어실험실, 대학원등 신축교사로
지하에는 학생 휴게실 마련돼

일관 파곡 신축교사가 2월28일까지 내부 설비를 마치고 신학기에 개관된다. 70년 10월30일 기공식을 하여 그동안 총 공사비 1억2천여만원을 투입, 1년2만에 완성되는 신축교사는 연건평 2,290평으로 지하1층 지상6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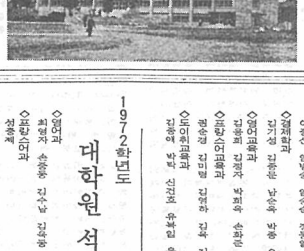
신축 건물의 사용 내역은 지하실에 총학생회의실을 비롯한 학생위원회실과 체육실, 휴게실들이 마련되며, 1층에는 무역대학원, 2층에는 대학원이 3층에는 사용드—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시청각연구 사무실이 마련되며 4, 5층에는 언어실습 실험실과 영사실이 들어서는데 6층의 옥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강의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신관에 위치하던 대학원과 무역대학원이 신축교사로 이전함으로 현재 신관에는 도서관이 현관 2층에는 종합연습실 확장되어 2층에는 강의실이 마련된다.

그 3층과 4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마련되며 현재 신관에 위치하고 있는 소련및 동구권제 연구소와 중국문제연구소는 본관으로 이전한다.

신관, 우측에 건립중인 본관 건물은 현재 지하1층과 지상3층의 외곽 공사만 완료 되었으나 앞으로 지상 4층의 건립계획이 세워져 있어 이 건물은 새로 개관되는 학생 휴게실을 지하, 지상 1층에 마련하고 2층에는 강의실이 마련된다.

<전면기사 7면에>



아르헨티나대사 내교

지난 16일 12시 주한 아르헨티나대사Goraciano Colmano씨가 본 대학을 내방, 박술음 학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자리에서 박학장은 입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Cocimano씨에게 제일기간중 본 대학 에스빠냐어과의 발전을위해 기여한 공적을 치하, 감사장을 수여했다.

연극부「욱맹이라는 이름의 전차」공연해

지난 11월초 공연할 예정이었던 본대학연극부의 공연이 휴교령사태로 인해 연기오는 4월말 게재기별정사의 일환으로 공연하기로 결정되어 이번 동계방학을 이용 리허설에 들어갔다. 공연작품은 테네시 윌리암스원작 「욱맹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동서원시가 연출을 기획을 정정남 (J·3) 군이 맡게 밝혀졌다.

알 림

제21기 수습기자 모집

신학기를 맞아 본사에서는 보다알찬 신문제작과 편집진을 위해 다음과같은 요령으로 수습기자를모집합니다. 대학사회와 저널리즘에 관심있는 재학생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자 격 : 1학년 남녀 재학생
모집인원 : 약간명 (사진기자 포함)
제출서류 : 원서(본사 소정양식) 1통
제출장소 : 본사(본관 314호)
원서마감 : 1973년 3월 22일
시험일시 : 1973년 3월 23일
시험장소와 시험시간은 추후 발표함
1차합격자 발표 : 3월 27일
면 접 : 1차합격자에 한함

1973년 3월
외대학보사

기사넘쳐 「이문크로니클」 6면에

1972학년도 졸업예정자명단

◇영어과
김경희 김경애 김경숙 김경자 김경미 김경희 김경숙 김경자 김경희 김경숙 김경자 김경희 김경숙 김경자

번역문학에 대한 고찰

홍 병 철 (영어과 2년)

「번역문학에 대한 고찰」은 3회에걸쳐 게재하고 있는 연구논문이다. 지난 72. 6. 1에실자 73. 1. 1일자에이어 이번이. 마지막면입을 알린다. <편집자주>
<차례>
Ⅳ. 번역문학의 일반론
Ⅴ. 번역문학 정립을위한 방안
Ⅵ. 결어

Ⅳ. 번역문학의일반론

지금까지 번역의 부정확인 측면에서 그 한계성(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그러면 훌륭한 번역 또는 번역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어떤 사항인가를 추적해본다.

나는 원문에의 접근은다만 문자상의 정확이나 형태의 유사성만 가지고는될수없다고 믿는다. 초상화에있어서 처럼 원문에 근사한 번역은 불기있고 자연스런 방법없이는 이루어 질수없다. 원작자와 마찬가지로 번역자도 자기에게 자연스러운 어휘만을 국한해서 사용하며, 양식화에 포함되는 문학적 기교를 피하여야 한다.

번역은 원문과 같은 생명감을 창조해야 하지 말저주의 인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註:파스테르나크의 「세익스피어번역소장」—노벨문학전집·신구문화사간 235P)

파스테르나크의 주장대로 문자상의 정확이나 형태의 유사성만 가지고 원문과같은 효과를 낼수없다. 뛸기있고 자연스런 방법이 수반해야 하며 원문과 같은 생명감을 재생(再生)시키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언어의 정확과 정서적 공감을 환기시킬수 있어야 한다.

「위대한 시인이 아니면 시의 번역은 할 수 없다」는 러시아의 예브시생크의 탄언도 이럴 연유에서 비롯함 것이다.

번역의 일반적 원리에 대해 바일레교수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번역은 원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주제(主題)에 대한 숙달로서 원작의 사상을 완전히 이식(移植)시켜야 한다. 훌륭이려면 일부 수정을 위해서 번역가는 원어는 물론 모국어의 속어, 비어, 고어 공통어, 표준어등까지 완벽한지식이 있어야하고 작품에서 작가가 다루고자 하는 의도(主題)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例文21)

새야, 새야, 파랗 새야.
눈비버보도 물리는 소리
눈 비버보도 경별 물리는 소리

(註:피천득·파랗새)

"Bird, Bird, Blue-Bird"
I hear the Song
I hear the Song clear

(註:김종길역 Korean Verses 한국시인협회 1965. 48 Pege)

위 시에서 '새야'가 주는 어감과 'Bird'가 주는뉘앙스의 차는 현격하다. 유성음으로 바뀌 문학뿐 아니라 더우기 '눈비버보도' 따는 구절을 적당한 발표 미치할 수 없자 생략해 버리므로써 시적감동은 사라지고 의미(意味)만 전할 뿐이다. 원작의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번역가는 때론 축약 또는 부가하기도 하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작의 정서적 무드를 최대한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제론의 여지가 없다.

例文22) There bear my corse, ye onmrades, bear,
The bridge blithe to meet

(註:Colin and Lucy:Tickell과)

Exangue, Oh, illuc, comites, deferte cadaver,
Qua semel, Oh! iterum congrediamur, ait:

(註:바일어 번역자 Bourneve)

에문22) 에서 바일어 번역자이자 시인인 빈(Vincent Bowne)은 시의 정서를 살리기 위해 Qua semel, oh 라는 바일어를 주저없이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은 원작과 같은 음력과 운율감을 풍시에 포함한 훌륭한 번역으로 지목된다. 감각과 힘 그리고 원작의 기쁨(氣諧)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훌륭 원작의 시적기법도 살려야 한다. '히틀릭 코프렉'으로써어진 시는 그와 같은 음악적 효과를 번역문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7·5조의 가사풍은 번역해도 율동감이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例文23)

처—르색, 처—르 색, 처

제도적 번역풍토 확립도 절실

번역, 창작, 문학연구의 삼위일체이루어져야

—르 색아 마린다, 부른다. 끝이 내린다.

(註:최남선·해에서 소년에게)

CZOL—SOG, Czol—Sog, Czog Sswas,
The sea Strikes, and dashes, and breaks,

(註:정인섭역 : 大韓現代詩英譯對照集 P.184)

철색철색의 고유한 의성어를 그대로 발음대로 표기한 정인섭의 번역에서 동일한 음악적 효과와 율동을 느낄 수 있으나, 대신 의미가 전달이 안 된다.

CZOL—SOG, Czol—Sog 과 도치는 소리의 의성어가 영어 사전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 표기법이 다른 것을 억부로 무지 알았기 때문이다. 물우는 소리 표기도 영어와 한글은 통일하지 않다. 리듬(율동)은 전달되지만 사상 곡 의미 전달이 부족하지 못하게 된에(例)이다.

물째, 번역은 원작의 문체(文體)와 표현기법이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한 헤밍웨이의글은 모국어로도 감격한 느낌을 주어야 하고 유창한 「섹스피어의」의 희곡을 우리 언어로도 읊어 나아한 나, 내밀 (內面) 한 무드의 「To be or not to be」가「죽느냐 사느냐」로 결박하고 장막하게 번역되고, 한쪽 수제목같은 경탈 (講座) 한갑자을 주는 장슨원의 글이 번역되어 문장하고 혼박하게 번역된다면 곤란하다.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름「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라」는 귀절을 영어 한 글을 대조해 보면 문체와 표현기법이 일마나 원작과 동떨어져 있나를 알 수 있다.

例文24)

a:When you take your leave
Tired of seeing me,
Even though I die, I should not weep.

(註:정인섭역 대한 민대시영역집 P.56)

b:You are sick and tied of me
When you leave
I'll not weep though I die

(註:Peter H, Lee역, Anthology of Korean Poetry P. 73>

위의 예문 갑오년 (甲午年) 을 「in the years of insunection」(註19)로 번역하여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게 하지 않고, '1894년'으로 자연스럽게번역시켰다. 의역인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은 당연하다.

고유명사나 단위에 대한 주를 단다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은 명언하다. 유명한 문학서적 출판사인 노튼(Norton)전 「피화법」(註21) 에는 모스크바 거리지도와 바스크리니코프가 다니는 지명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등장인물에 대한 어원적 의미까지 설명해주고 있어 번역에서 참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만회하여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원작과 같은 경이(平易)를 구빙하게 되고, 공감을 환기시킬 수 있는것이다.

번역이 훌륭해야 할 일반적 원리는 타일러교수가 지적한 바 대로

첫째 원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주제에 대한 숙달로서 원작의 사상을 완전히 전이 (轉移) 시켜야하며

둘째 원작의 문체와 표현기법을 동일하게 모방하여야 하며,

셋째 원작과 같은 자연스런 경이(平易)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원작자 파스테르나크의 소감같이 원문과 같은 생명감이 있고 경서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야 말로 모든 번역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 원칙과 목표인 것이다.

(註18:Essays on the principies of Translation: everymen's library

19:Korean Verses, 한국시인협회 1965. P. 42. 이인수역

20:Modern short stories from Korea 정인섭-문호사 4291

21:Norton Critical editions:Crime and Punishment)

Ⅵ. 번역문학 정립을 위한 모색

중국의 효력 (胡適) 은 제안하기를

「우리가 정말 서양문학을 배워서 우리 신문학의 모범으로 하기 위해선 서양의 문학적 명저 (名著) 를 많이 번역해서 참작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 번역한 문학서적 출판사인 노튼(Norton)전 「피화법」(註21) 에는 모스크바 거리지도와 바스크리니코프가 다니는 지명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등장인물에 대한 어원적 의미까지 설명해주고 있어 번역에서 참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만회하여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원작과 같은 평이(平易)를 구빙하게 되고, 공감을 환기시킬 수 있는것이다.

번역이 훌륭해야 할 일반적 원리는 타일러교수가 지적한 바 대로

첫째 원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주제에 대한 숙달로서 원작의 사상을 완전히 전이 (轉移) 시켜야하며

둘째 원작의 문체와 표현기법을 동일하게 모방하여야 하며,

셋째 원작과 같은 자연스런 평이(平易)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원작자 파스테르나크의 소감같이 원문과 같은 생명감이 있고 경서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야 말로 모든 번역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 원칙과 목표인 것이다.

(註18:Essays on the principies of Translation: everymen's library

19:Korean Verses, 한국시인협회 1965. P. 42. 이인수역

20:Modern short stories from Korea 정인섭-문호사 4291

21:Norton Critical editions:Crime and Punishment)

Ⅵ. 번역문학 정립을 위한 모색

중국의 효력 (胡適) 은 제안하기를

「우리가 정말 서양문학을 배워서 우리 신문학의 모범으로 하기 위해선 서양의 문학적 명저(名著)

신입생을 위한 가이드 지상(紙上)오리엔테이션

시청각 연구 센터

신관 2, 3, 4층에서오는 신학기부터는 신축건물 3, 4, 5층으로 이전, 사용될 시청각 교육실은 폭수 과학기재를 동원한 시청각 교육시설을 설비 의욕이를 토대로하는 국제관계실무과외양성이라는 본대학 목수이념 구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도입, 신축교사 3층에는 사운드라이브러리가실, 운영되고있으나아직도 학생들의인식부족으로이용이 저조하여 이의활용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만큼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도 거기의 수동적인 학습태도에서 탈피, 능동적인 자세로 이의적극적 이용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주의사항들을 피하고 대학의교육과 그 이용상의 절차등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

먼저 시청각 교육 연구실에는 가장 큰 비중을차지하고 있는 9개의 언어실습실이 있는데 이 실습실은 정원수만큼의 booth에 언어실습시설이 갖추어져있어 교수조정학생 학생들의정취력을 높이며 발음과 회화능력등을 교수가거쳐지도 할수있도록 되어있다.

다음으론 7개의 시청각 교실이 있다. 콘돔기, 녹음기, 스크린이 장치되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토록하여 외국어의 바른전달력과 상대 파악력을 기르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영사기, 스크린, 실물투영기, 입체음향시설이 완비된 교육영사실과 국제사정, 외국문화 풍습등의 특수교육에 시청각 자료를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멀티비전 교실도 역시 시청각교육연구실에 부설 운영되고있다.

실습실에서사용될 녹화테잎, 음반, 녹음테잎의 모든 자료를 제작 편집수정 복사를 위한교재 편집실, 교육보조자료를 비치한시청각자료실등이 설치되어있다.

다음으로 학생자작의 자유로운 습작을 허용, 도서관과 같은 구실을 하여 학생의 외국어 학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운드 라이브러리가있다.

이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출입을 하기앞 거쳐야할몇가지 절차가 있는데 먼저 매학기 언어실습실 담당교수의 수강확인서를 제출,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원하는 교재의 녹음신청과 이의 출입이 허용되며 출입시간은 제한없이 원하는대로 가능하다.

이상 언급한 학생들의 학교의 지도, 설비를 총동원해 유하길 바란다.

과제물도서실

도서관에 신학기부터 신설

과제물 참고서적 및 강의도서 비치

올 신학기부터 학교당국에서 본대학교육의 방향과 의미인의 학구적 자세정립을 위해 오랫전부터 구상해 오던 과제물도서열람실 (Assignment Library) 이 도서관1층에 자리잡게 된다.

이것은 문자그대로 학생들이 그날그날의 과제물을 이행하는데 있어 최대한의 참고도서실로서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동안 학생들이 과제물을 제대로이행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참고 자료의 부족으로 항상 불충분한 과제물로써 이 필수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여간 고무적인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외래인원이 인과제출도서 열람실을 적극적으로 활용, 각자의 실력향상에 최대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하면서 과제물도서열람실의 내용을 살펴본다

과제물도서열람실은 각학과, 각과의 교수, 과목별로 과제물에 전계된 강의기초도서와 참고도서를 비치, 매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를 이 강의기초도서와 참고도서에 의해 완수할수 있도록 편성으로 학생들은 우선 열람실에 비치된 도서목록에서 자기가 원하는 도서를 찾아 열람실에서과제를 끝내게 되면 도서를 다시 제자리에 비치, 다른 학생들에게도 편의를 주어야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기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참고도서가있어도 개개가 원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독서능력이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애로점이 많았었다고한다. 그러나 이 열람실의 경우 원서해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부분적인 기본도서 가 수시로 열람될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달은 부리한 수고를 덜어주게 된다. 현재 학교 당국에서는 이 열람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도서관 및 서점등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한편 각과의교수가 강의하는 교재의 자료까지비치, 지금까지는 교수가 강의하는 강의내용의 근거를 몰랐던 학생들에게 많은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각과의 강의기초도서는 최소한 10~15명에게 한권이 피할필수있도록 몇권씩 비치해 둔다고한다.

또한 이것은 각과의 학생들이 열람실을 얼마나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과제물에대한 올바른평가, 또는 교수의 학습방법등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각과의 교육에대한 허실을 파악할 수도있어 일거이득의 효과를 누린게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대학교육의 제반문제에있어 혁신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데에도 획期적유용하는데 본대학 과제물도서 열람실이 에초의 의도대로 진행되다면 교수와 학생간의 학문을 통한 대화는 더욱 순조로와질 것다.

도 서 관

본교 도서관은 1954년 개교와 동시 개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생들과 교직원의 학습활동에 기여하여 왔으며 도서관 장서는 71년 10월말현재 통양서및 서양서를 포함 116,813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신학기부터는 2층까지확장 대폭 더많은 정기간행물 열람실을 준비했다.

과제물 도서실은 각강좌 과목교수가 그 학기잠의에 필요한 도서를 선정, 이것에 각학과별 과목별로 배열, 많은 학생들이 선정도서를 손쉽게 이용케 하려 하다.

또한 희망 도서함을 설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희망도서 목록에기재, 제출하면 도서관측에서 심의 도서구입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도서관 측에서는그동안 세계 140여국국의 정부와 한국주재 대사관, 영사관에 그 나라의 풍습과 한내자료를 외뢰, 57여개국에서 송부된 각국의안내 자료를 비치, 그나라의 자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열람시키고 있다.

먼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러한 도서간 장서를 대여받기 위해서는 백학기초 도서관에서 발급하는도서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

<홀리즈에겐 영일 (事日) 이 없다>

다. 단, 도서 대출증은 서고에 비치중인 장서의 대여에만 쓰이는데 도서 대출기간은 대출일로 부터 일주일이다.

(이번학기 도서대출증 발급기간은 3월1일부터 15일까지)

경계의 훈 (訓)

신입생에게 주는글

두번이상의 미팅은 본전생각나 만사에 능숙한 자를 경계 경험많은 척하고

방실였던가, 초저를 공리기를, 그럼나 이제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된셈인 한 파도를 헤쳐가야 한다.

어느 렌 플로 저 밝은 태양을 등지고 있다고오랭 각설으며, '쌀쌀한 타향역에서 3등열차의 시내로 가 차상도 없어 초조히 무림 승차의 기회를 보는 서글픈 인생만치도 갈팡는 자신을 깨쳐 자조도 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진흙속에서도 백합은 피어날수 있으며, 실의의 겨은 그만자 뒤에도 보다 진한 향취의 서광이 어떠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여그때는 버스의 입원이 되었는가, 주위의 권고는 없었는가. 선배의 공허한 PR은 없었는가, 친구가 미네르바의 지혜의 숲으로 동을 입지는 않던가, 아니다 그러지 무언지 가 말은 곳이 의때란 말인가. 어쨌든 좋다.

자기는 매장가요의 유명이 사라지듯 가버렸다. 그때는 이미 별 수 없는 의대의 진화력 속에 빠졌으며, 어쩔 수 없이 특잡은 처지의 투배의 억센 코에 고삐를 매고 정거장 흔산즈의 보금자리로 이끌고 돌아가, 곧빈 사나이들이 허장(虛裝)떠는 캠퍼스의 규모는 온위지 마라.

이에 내가 그때문에게 새마음, 새각오로 새 인생을 맞이하는는 복면의 이면(裏面)을 나타낼것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다. 이 부질없는 작설이 없더라도 그때를은 버지않아 스스로 자부할것이다. 나는 해가 떠도, 밤이 떠도 즉산즉사고. 타협, 여기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돈벌자는 CM도 아니요, 선거 벼룩기 약하려는 자기 PR도 아닌 그때들을 위한 가이며 보배 친관과 별관사이의미 비트바 숲에서 그때들이에 배지 압도록 나침판을그려주려는 순수한 심정 뿐이다. 얼드리면 배관달랜데 퍼스 안에서도 대수(代數)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선출(先出) 한 내가 훈계 벌어지하려 하니 부디 명심하여 가슴에 새겨 두기바라는마음 간절하다.

그때들, 대학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은빛이성성한 노고수의 명장의를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때들이 먼저 생각하고 말장 하고 큰 일은 미일이다.

그러니 미일을 그렇게 선말의 논츠리로 바라보지마라. 미일이란 첫번째는 호기심에서 하고, 둘째번째 밥에 본전 생각나는 것이다. 그러나 미일은 두번이상 하지마라, 이것이 나의 첫번째 경고다.

두번째 경고는 캠퍼스내에서 절대 이성을 동반치 말라는 것이다. 만약 그때들이 시위하도 하듯 캠퍼스 내에서 이성을 동반한다면, 그때들에게 박연한기 대를 절절면 다른 타수의 이성들은 그렇찮아도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소크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대일의 인간관계가 타수자에게는 공연한 혐오감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그때들의 마음이 상대방 한 개인에게 쏠쏠감 이는 느낌 때는 그야말로 유듯면 개 지붕바라보는 격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만심은 가지고 있다. 대부기 선일에 선만을 거쳐 대학사회에 갓갓어온 자칭 엘리트대에겐그것이 더욱 강하시 않을수 없다 「그러기에 그들은 갖은 동료들에게도 우월성을 나타내려하며 거기에서 남보다 많이 아는 척 남보다 경험이 많은 척하는 것이다. 경계하라 참기 (難技)에 능하고 경험많은 척하는 자를 최나하면 그들은 대학사회의 경모감을 얻고 있어도 대학사회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설픈 한사에 능숙한 척 하는자를 경계해야 할 것은 재인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세번째 경계다.

네번째, 돌이상의 다방리 화반도를 암기하는자를 경계하라. 그들은 강의시간표나 시험일을 외기보다는일시적 유희에 심취하는 자 그 유한성을 에써 부인, 무한자—신(神)에 대한 귀의를 외면해 버리는 것은 아직도 인간의 능력을 믿지하는 경향을 고수하려고 버티는 그들의 아집(我執) 때문 일게다.

그들과 그러한 아집은 언제가지지속될지 모른다.

그러나 밤 혼날 우주에 대한 신비가 인간의 능력에 의해 그 신비의 베일이 벗겨질 경우를 상상해보자. 그때 인간들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 인간들은 더부분 신의, 종교의 절대적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때를 인간들은 경탄 인간의 능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 쉬운 자만과 오만의 길은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위험을 지니게 될지도 모른다.

그 유한성을 에써 부인, 무한자—신(神)에 대한 귀의를 외면해 버리는 것은 아직도 인간의 능력을절대시하는 경향을 고수하려고 버티는 그들의 아집(我執) 때문 일게다.

그들과 그러한 아집은 언제가지지속될지 모른다.

그러나 밤 혼날 우주에 대한 신비가 인간의 능력에 의해 그 신비의 베일이 벗겨질 경우를 상상해보자. 그때 인간들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 인간들은 더부분 신의, 종교의 절대적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때를 인간들은 경탄 인간의 능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 쉬운 자만과 오만의 길은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위험을 지니게 될지도 모른다.

문제점 안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제 채택 절실

교양과목에 대한 강의태도 바꿔야

본대학교양과정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은 그동안 잔심있는 학생들간에 오랫전부터 숙의되어 왔지만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재 그대로 방치, 날로 더 많은 문제점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이유는 무엇때문일가?

대학교육에서 교양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여써 논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본대학 교양과정부의 올바른 방향과 개선을 위해 감히 몇마디 제언해 본다.

현재 필해지고 있는 교양과목에 대한 교수의 열의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라는 것이 더부분의 학생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그 이유는 더부분의 교수가 전임강사가 아닌 이유로 학교 저학교 출장하는, 말하자면 시간강사라는 점에 있다. 시간강사 더부분은—즉 그날다고 강주하기는 어렵지 만—학생들에게 장외만 큼 내고 큰 강의실을 떠나 학교에 머물러 있지 않기때문에 학생과의 학문을 통한 대화라는 것이 실상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교수와 학생간의 학문을 통한 대화라는 것이 실상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교수와 학생간의 학문에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학교 저학교 출장하는, 말하자면 소속이 불분명한 시간강사라는 점에 있다. 시간강사 더부분은—즉 그날다고 강주하기는 어렵지 만—학생들에게 장외만 큼 내고 큰 강의실을 떠나 학교에 머물러 있지 않기때문에 학생과의 학문을 통한 대화라는 것이 실상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교수와 학생간의 학문에 있어 무관심한 학생으로 부터 그 정도가 더심하다고한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 우주여행에 필요한 성격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인간을 이끄는 인간본의 한계를 유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은 가탈설게,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는 것이다.

현대인이 아무리 종교를 외면하고 있는 존재를 불신한다 하더라도 극한상황에 다다르면 결국 신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인간의 능력 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은연중의 인식이 그대로 표출된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 우주시대에 살고있는 현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본질적 유한하고 우연성에 좌해서는 구태여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데도 더부분의 인간들—현대인은 또 장수록 그 정도가 더심하다고한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 우주여행에 필요한 성격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인간을 이끄는 인간본의 한계를 유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은 가탈설게,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는 것이다.

현대인이 아무리 종교를 외면하고 있는 존재를 불신한다 하더라도 극한상황에 다다르면 결국 신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은연중의 인식이 그대로 표출된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 우주시대에 살고있는 현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본질적 유한하고 우연성에 좌해서는 구태여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데도 더부분의 인간들—현대인은 본 전임강사제채택은 참으로 시급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전임강사제를 채택함으로써교수의 열의있는 강의및 교수와 학생간의 학문적인 대화는 물론 교재의 풍요로 기할수 있어 강의교수에 바라았는 학점에 대한 불공평, 그리한 점에 대한학생들의불만도 자연 해소될수 있으나 학생들이 학구열을 일지않고 학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전임강사제의 채택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현 임강사제도가 본대학교육상 지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있다는 것을 감안, 학교당국이 부단한 노력을경주해줄 것을 다시한번 요망하는바다.

빈의자

현대는 우주시대라고한다. 아닌게아니라오랫동안 신비의 세계로 만인시되던우주가 인간의 한없는 탐구능력에 의해 그 베일이 하나 둘 벗겨져 가고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인간의 능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나르시스에 빠져버릴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는 시대다.

언젠에 모잡지에서 다음과같은 기사를 읽은 것이기억된다. 만일 당신이 연습에 앉아 3개월동안 우주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갈것인가? 하는 물음에 더부분의 사람들은 성서를 가지고 가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만년은 현대의 인간들 더부분이 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에 틀렸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만큼 있지도 모른다.

혹 우주여행도중 기관고장에 의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게될 경우즉 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성서를 하나의 방편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면 도 모른다.

현대의 인간들이 신을 부정하고 종교를 믿지 않는 경향은 짙은 종으로 장수록 그 정도가 더심하다고한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 우주여행에 필요한 성격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인간을 이끄는 인간본의 한계를 유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은 가탈설게,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는 것이다.

현대인이 아무리 종교를 외면하고 있는 존재를 불신한다 하더라도 극한상황에 다다르면 결국 신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은연중의 인식이 그대로 표출된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 우주시대에 살고있는 현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본질적 유한하고 우연성에 좌해서는 구태여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데도 더부분의 인간들—현대인은

축 입학

1973학년도 한국 외국어대학 신입생 합격 예정자 명단

◇영어과
성기열 백윤진 서성훈
이희관 이태희 김창부
정지룡 전영철 김익만
이상연 안영섭 이상재
김상배 장준혁 최창수
정인철 송시영 박윤돈
원용재 이윤재 신재윤
신남철 최종만 홍사기
이방효 심의영 송미무
유근주 김기동 김정훈
이재수 임성훈 노혁종
서영욱 한시영 장순규
이광우 최희진 김숙영
홍영택 이재호 김형호
김진학 전인호 정 훈
문귀선 이영주 정인여
전기여 유종렬 조길호
홍지표 김필권 백창훈
최영찬 박세현 박세영
이봉기 여병호 이재영
김승환 최이봉 곽원호
이창룡 윤승필 문치창
박형복 고상식 김기서
최경식 구자웅 조영훈
학철환 장신일 전세진
김상욱 유세인 김종렬
홍경숙 김동완 김경수
김창훈 유병헌 전국수
남경수 이상기 최순희
김기성 김남웅 박재영
송용덕 박동상 김형국
이인석 우성기

◇프랑스어과
김영호 이창섭 안상헌
이윤찬 임봉빈 이준경
윤예준 조영훈 김현순
윤인선 김경식 박영수
이선표 조영재 최종길

김진두 박남수 심천보
박세현 박영희 김재민
한형섭 김정우 양승주
양승찬 송 건 고택윤
이상희 홍희숙 한용우
양승애 지일현 이완선
설창자 이도형 유영희
이홍순 이종원 황순강
정문석 진병철 박민수
김경수 이영진 최필화
전태홍 홍재익 이재영
이혁기 박지선 김상수
손선홍 김시범 장상석
이성형 박재희 김재인

◇러시아어과
김정웅 신호근 유우섭
장관식 송귀선 이학기
손영근 안상국 권형만
이종학 문우상 조남구
이은순 손예선 차성진
신임숙 안상진 김용태
김미향 정기상 고 일
김병규 이황희 박상준
김순동 김미숙 이재호
김성수 김근식 이영주

▲에스빠냐어과
정진헌 장서식 지용범
차승호 권태호 정진성
최동원 이재열 정낙형
박옥수 최덕덕 이용선
신은숙 이구원 조명용
최동덕 곽형규 서상웅
공인식 박계형 손현수
손문기 한창남 조희자
김기서 서문원 한유인
서호덕 최하수 김정식
성경혜 조상훈 양정근
전국태 유병휘 신기호
최종호 이재덕 이원창
박옥수 김인성 김호균

「야누스」의 영접

권 영 욱(무역학과)

흔히들 학생생활에 대한 미련과 자신들의 불만족스러움엔 대학생활에 대한 복고적인 생각으로 만일 다시 한번 학교에 다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이런 투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시 4년간의 학생생활을 할 기회를 주고 대학의 문을 나설 때 그들의 학생생활을 회고하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올가 하는 것은 매우 흥미한 일이다.

물론 내가 생각하기로는 별로 만족스러운 대답이나 오리라고 기대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버린 정상적인 대학생활에 비해서 다시 주어지는 대학 4년이 비정상적인 것이므로 투표하지 않는 대학생활을 보내리라고는 볼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학생들을 참으로 불행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싶다.

1학년초 어느교수는 「시계추처럼 교문을 드나들기만 한해도 배울것이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라고말했지만 4년을 지난 지금그 말을 아무리 음미해보아도 결코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는생각이다.

나에게 있어서의 대학은 참으로 긴 기간이었다. 이것을 대학이 너무 지루한 것이어서 그렇다는것이 아니고 나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내 철다는 이야기가 강의실에서 공부를 많이 배웠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와반대로 공부할 기간은 나의 대학 생활 4년에비해 너무 짧았다.

사실상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의 학기가 벌써 계속된 셈이지만 괴롭혀진 수업일수의 단축에서 나는그 이상의 것을 배우고 얻은 셈이었으니가 방장 교문을 나서는 마당에서 후회스러운 것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투덜한 결심이 이루어진것도 아니지만 막상 후회하고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에 비해 어느정도의 선의로 해석할수 있는자만을 가지고 이제 나서게되었다는 것이다. 후회가 하나 있다면 대학생활이 너무짧았다는감이드는것이다.

그렇다고 그 비싼 등록금을 고막고막 납부할 능력도 별로 없거만 이제 공부다운 진짜 공부를 좀해보려고 하니가 졸업해가되어 버린것이다.

그러나 역시 후회는 하고싶지 않다. 그럼에도 대학 4년간 성장한 나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만족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이것을 사회에서 활용해보고 싶기도 하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대학생활에 대해서 너무많은기대를 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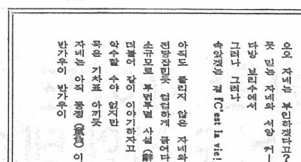
양산 (量産) 체계의 「엘리트」 집단인 대학에서 이기대를 만족시킬수 있는 경에가 과연 얼마나 될가하고 생각해본적이 있다.

이를을 포용하고 수용할수있는 사회가 너무 빈약하고 부패함하다고 볼수밖에 없다. 사회는 이들에대해서 한없이 동경하는가하면 또 이와반대로 대학생들에대해서는 한없이 냉정한 극과극의 사이에서 대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어리기만 하는 갓각자들이 모이고 쌓여 볼필요한 수많은 부조리들에 폭해내고 있는 것들을 강인해 볼때 대학인은 대학인대로 사회인은 사회인대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자기자신 스스로를 타야볼 필요가 있을것같다.

그리고 전경한 의미로서의 상아탑은 그 본연의사명대로 남아 주었으면 한다.

사회와 대학이 유리되어서도 안되지만 너무 밀착되어서는 더욱 안되기 때문이다. 그럼 의미에서 머



그의 분위기

김 영 찬

한국의 모든 모든 그들의 모든 그들의 모든 그들의

사회속의 대학기능

오 한 진 (교무처장)

사회속의 대학의 위치와 기능을 분석한다면, 전통적 입장에서는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성격이 많이 변해 져가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기능을 대체적으로 풀어본다면 파거나 현재에 있어서 다음과같은 공통점 점이 있음을 볼수있겠다.

①학문과 교양에 있어서 최고의 유산을 중심히 유지하며 후세에 전달하여주는 「전통적 사명」을 들 수 있겠고 ②전학문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과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방법을 개발하여 교수하여 지도하는 「교육적 사명」을 들 수 있겠다.

③으로는 대학은 어디까지나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의 사명」을 다하여야하는것이며, ④타면 폐인 인격형성을 육성하여야할 「인간교육의 사명」을 들수하고⑤ 계급 계층을 뛰라한 전국민에게 학식과 교양덕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낳어주는 「국민교육의사명」을 다하는것이 대학의 기능이라고보겠다. 이와같은 대학의 공통된사명도 산업사회발전과 더불어 약간 그 기능과 사명을 달리하기에 이르렀다. 즉 대학은 사회와의 접촉이 밀접하여짐에 따라 ①대학은 연구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사회에서 중사할 직업인의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의 사명을 간직하게되었고 ②직업교육의 사명을 이행하면서도 학생들의 인격형성을 위한 교양교육을 위주로 하여야되겠으며

③교양교육을 이행하면서도 연구의 기능을 다양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연구」「교수」「봉사」의 기능을 일체화하여야하는 대학으로 성격을 바꾸게 되었다. 그러므로써 대학은학문연구와 인간교육을 위한 「학술교육」과 「교도교육」에서 「직업교육」이란 한과제를 더 안게되었으며 이러한 직업교육은 법무인교육의 일환으로서 「성인교육」내지는 「기능교육」으로 확장되어 대학은 이러한 제 사명까지도 다하여야할 막중한길을 지게됐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 그외에도 대학은 그학기와 지역사회봉사성의 요청에따라 특성화되어가고 있으며, 사회개발 및 산업사회개발을 위한지식의 보급체기되어 특수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있다.

그리고 대학은 학인이나 지역사회및 단체들을 위한 사회, 경치, 도의교육까지실천에 옮기는 사명을 지니게되었다. 이에따라 대학의 교육조직도 물론 개편되어 갔음은 부인할 필요도 없다. 학문의 기초연구를 위한 「기초과정」이니, 전문연구를 위한 「전문과정」이니하는 학제나, 인문, 사회, 교양을위한 「일반교육과정」이니 일반직업인의 보충교육을 위한 「특장교육」이니 「기속교육」이니하는 특수과정을 나눔 이러한 연유에서 발생된것이다. 이제대학은 고고한 위치에서 학문의 자유만을 누리며 진리만을 탐구하고 비판하는 성직자의 위치에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 접근하여 사회를 개발하고 진단하고상호협동하며 국가사회를 「보도」해나가는 위치에 서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대학은 사회에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야함은 물론이며 학문의 자유를 대학의 영원한 생명으로 보호하성시켜야될 것이다. 이제 대학은 산업, 과학, 사회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대학의 기능도 그내용을 달리하게되었다. ①「연구의 기능」에 있어서도 학술가로의 자임과함께 지식이 확대되어 있으므로 기술업조를 통해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여야하며 국제적 통신망을 통해 연구의 기능을 국제화하여 연구의 조직화를 기해야하며

②「교수의 기능」에 있어서도 학술적 전문교육과 직업훈비교육으로 전문하여 학문의 정신을 습득시키고 아울러 학문의 조직화를통한 학문을 공동거발하는의식을 강화시켜야한다. 뿐만 아니라 학문을 위한 무게 자장설에 힘을 기울어야하며 민주적국민교육을 위한 정치교육도 아울러 학문교육과 병행시켜야된다. ③대학은 자치적운영면에서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조화를 이루고합리화를 기할수 있는 「단체적 기능」을 발휘할수있어야하며

④봉사의기능에 있어서도 산업협동의 일환으로서 직업보수교육 내지는 대학공개강좌등등의 계속교육을 통해 대학과 사회 (졸업생) 간에 접입없는 교류가 이루어져, 대학의지식이 사회에 계속 이식될수있는 「사회적실점기능」이 발휘되어야한다 ⑤ 그리므로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보양은 실사회에 전파되어 명실공히 대학졸업생은 사회를 지도할수있는 인재로서 준입할수있으며 나아가「국가의 빈」으로서 국가사회를 도울수 있는 「간접적기능」을 다할 수있는것이다.

⑥이월으로써 국가와 사회, 인류가 번영할수 있는 「세계시민적의식」이 구축될것이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학문의 기능」을 다할수있는 대학월학이 확립될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대학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학과 사회

대학의 철학 확립

사회를 보도(補導)해야

사회를 개발, 진단, 상호협동하며

환경적응을 추구하라

박 동 운(한국일보 논설위원)

필은이들은 「새 발을」을 벗차게 체험하여야한다. 특히 우리는 분단 국가에살고있으며 근대화를 지향하는 변동 사회에 처신하기때문에 지위와 역할에 걸맞 불한정 요인이 많다 「계다가 의며 졸업생의 경우는 해외 진출의 기대가 농설이 유난히 무엇할수있도록 재정력 지원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온지 오래다.

그가운데서도 대학 졸업과 사회 진출은 인생 명로의 가장 굵기찌인 전환점 중의 하나가 된다. 최고 학부를 나온 성인으로서 국가 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이 되며, 자기 발전과 가정 건설에서도 발하자면 「외존의 시대는 가고 자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파악하겠기 때문이다.

금년 졸업의 입이다. 신년 하례의 「파리」에나가보니 이나라 일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사회가 『안개』의 어주인공을 소개하면서 「새해에복많이 받으세요」 라는 속하고 경험한 인상일을 연결하다. 그러자 그 가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복받도록 노력하는데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얼심히 일하면서 공부하겠읍니다」고 했다. 이때만은 평범하지 않았고 필자에서 느끼고 배운바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조건만을 말한다.

그러나 유리한 조건 명그렇지만 어학은 현대지식인의 기본무기로서 타대학을 나왔더하도 그럴때에 필자없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다. 여기에서 필자는 외대를 나오는 어학전공의수재들에게도 「도하나의전공」 분야를 적은것인게 개척해나가도록 격려한다.

그 근본취인 공부는 졸업부터의 일이다. 그리고 필자는 정부기관과 경제계 언론계등에서 일하는 외대 졸업생중에 그막월한 실력을 폭인하고있다. 사회학학과 문학, 전자의 경우라면 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는 식의 낮은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기수양이라는 내실 (內實)이 뒷받침해야한다.

부풀 인간의 사고와 언어는 그의 입장을 반영하는 풍시에 그의 성격에 바라 전개된다. 성급하면 속단하게 마련이고, 표현 장밥을 즐기면 그의 구상에는 구멍이 산견되기 일수이다.

공부하기방하면 시야가 좁고, 오만하거나 경련한데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感情移入) 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 시험성적 두뇌가 반드시 사회생활의 인간관계 원만력에 직결되지 않음은 흔히 있는 사실이다. 주체적 조건을 정비하되 항시 객관적 조건을 감안하는데서 「가능사에 관한 예술」이 이루어진다.

경년을 또 불어서 크고 크고나 다음에 자기의 입을 독자적으로 주인하는존재이다.

불는다는것은 아첨과 영합이 아니라 고집의 최피를 뜻한다. 종속으로 평적으로 이재금과 결여하되.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료는에 친절해야 한다. 그런데 속선 잡여다보이는 이해타산이 앞선다면 연시방에 초때절지이 없다. 고려의 기장은 「꾸준한 신의」이어야 한다.

중년은 오늘에 살고 노년은 과거에 산다. 그러나 청년은 청년은 내일에 산다. 그는 내일을 가졌기에 오늘을 탐욕수있다. 서류지 받고 양보함으로써 내일을 건설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손쉬운 심뗴을 뜯다면 년장자에 대해서는 경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어를 부탁해야하며, 이러기만하면 산 청심이 마르게 될것이다.

심리도 표준의원전이다. 심리적 거듭하는 과정에상응한 표준을 찾아내는데서 인간은 큰다. 하물며 청년은 내일에 기둥의 역할가 담기때문에 이러 저러한실제의 가능성을 미리부터적정할 필요가 없다. 용기를 찾고 새 내일을 바라보며 대학의 문을 내서는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축하화려를 보낸다.

1972학년도 졸업생 시상대상자 명단

학과	학번	성명	비고
프랑스어과	720214	한인석	학업성적최우수상(장학자상)
영어과	680210	유여인	학업성적우수상(학장상)
불어과	720224	김학근	〃
중국어과	660501	서봉성	〃
독어과	720410	한문학	〃
태국어과	660719	김서원	〃
에스페란토과	720404	방윤서	〃
일본어과	730723	윤상희	〃
이탈리아어과	720812	이상돈	〃
마레이·인도네시아어과	661118	구재만	〃
아랍어과	661206	최민덕	〃
포르투갈어과	661305	장혜식	〃
터키어과	721216	이한주	〃
버마어과	721303	박준원	〃
정치외교학과	65135	유정환	〃
법정학과	663201	이윤산	〃
법학과	68520	이영화	〃
무역학과	726426	안창렬	〃
경제학과	726511	이준걸	〃
영어교육과	726611	유영애	〃
프랑스어교육과	726708	박시현	〃
불어교육과	726814	윤명선	〃
영어과	720149	정의은	전공과목성적우수상〃(학장상)
프랑스어과	720222	임보연	〃
중국어과	652009	지재윤	〃
독어과	660632	장경난	〃
태국어과	660705	조계주	〃
에스페란토과	65029	이정기	〃
일본어과	730706	방윤국	〃
이탈리아어과	661004	조구선	〃
마레이인도네시아어과	730923	윤선숙	〃
아랍어과	661203	박종훈	〃
포르투갈어과	721123	장신만	〃
터키어과	661416	이봉선	〃
버마어과	721310	오화식	〃
정치외교학과	726106	윤상화	〃
법학과	653222	함돌범	〃
무역학과	726325	김재우	〃
경제학과	663132	안덕환	〃
영어교육과	726519	홍성진	〃
프랑스교육과	726716	신계순	〃
독어교육과	729721	최선애	〃
에스페란토과	726820	신지호	〃
영어과	660620	노승재	공보상
독어과	720406	최영신	〃
에스페란토과	730642	김재원	〃
터키어과	661419	서경윤	〃
무역학과	68222	권영복	〃
무역학과	726407	오원식	〃

수석자를 찾아

<수석졸업자 한인석양>

「정말 뜻밖의 일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수석의 영광을 차지하고 보니 다른 우수한 학생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겸손하고 사람은 조용으로 수석졸업의 소감에 답하는 한 인석(조 랑스어과) 양은 161대의 합 맞은 신장에 시원스런 는 말을이 첫 인상에서 이국 적인 냄새를 풍긴다.

전학년 총평균점수 92.5 점으로 수석을 차지한 한양은 성실여중·고를 졸업 우등으로 지내온 재원 (才媛) 이며 특히 대학 3학년 때는 특수외국어 전공학생에게 지급하는 정부특별장학금 수여자로써 국무총리상을 획득한바도있다.

「어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굳이 비결이라면 예습에 중점을 두고 남해한 곳을 터득하면서 복습하는 기본으로 강의에 임하는것이 최선의 학습방법」이라며 고교시절 언니의 지도와 프랑스인 수녀선생에게 배운 경험학습을, 특히 언습이 대학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 해는 외학도를 골몬 적이 있었지만 어자라는 사실 때문에 방향을 틀린 것이 프랑스어전공을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경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정부특별장학금 수여자로써 국무총리상을 획득한바도있다.

「어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굳이 비결이라면 예습에 중점을 두고 남해한 곳을 터득하면서 복습하는 기본으로 강의에 임하는것이 최선의 학습방법」이라며 고교시절 언니의 지도와 프랑스인 수녀선생에게 배운 경험학습을, 특히 언습이 대학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예습에 중점을 두고
수업은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 해는 외학도를 골몬 적이 있었지만 어자라는 사실 때문에 방향을 틀린 것이 프랑스어전공을하게 되었는데 결코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자랑스러운 듯이 에기를 계속하는 한 양은 프랑스어를 계속 더 공부해보고 싶다며 일을 지국어 다루는 것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듯.

「학상 졸업에 박치고 보니 억지로 떠밀려 나가는 기분이고 자꾸만 「학생」이란 신분에 애착을 갖게되요」하며 아쉬워 하는 표정을 역력히 나타내는 한양은 학인학보변 피구이스게이밍 선수로, 중·고등학교 시절엔 미술에 취미를 가졌었고 지금도 바쁘시간의 틈을이용하여 서예 (墨藝) 도 하고 있으며 수영 테니스등도 좋아하고 음악은 감상을 즐거움는다는 다재다능 (多才多能) 한 아가씨이다.

대학과 사회의 이질감에서 때로는 당황하고 두려움 감가짜있지만 이제 성인으로써 스스로의 일에 책임을 져야할 때도 되지않았느냐고 반문하는 한양에게 남성전에 대해서 다그게 물자 「글쎄 벗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며 희미한 웃음만을 그을른 자세리는 아직 생각해보 않아도 표리를 감춘다. 더나는 입장에서 학교당국에 대해 반마디를 청하자 본 「대학교육이 어학에 너무 편중되어있는 것이 드는데 어학뿐아니라 그나라의 문학, 사회등에 대해서도 이노정도의 포괄적인 강의가 아쉬워요」 하며 굳이 하라는 것이니 강히 말을 한다고 도 한번 접촉해 본다.

<1951년생 현재 Flying Tiger항공사 근무중>

어학 중심의 가치관 탈피 절실

실패연속에서 얻는 교훈에서 인간은성장

「꾸준한신의」가 사회교제의기장

김 기 수
전 대의원회의장,
월남어과명예졸업

지방인 신장답고 제상을 떠난 전 대의원회의 의장 김기수 (월·4) 군의 명예 졸업장이 고무처럼의 배려와 제작시 학우들의 요청에 따라 쓸쓸히 그의 부모에게 전달되다.

제작시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써의 중임을 다하기 위성의 능동적 작용을 생각해야한다. 졸업생 여러분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실전방법은①능력개발②인간관계의 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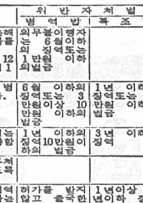
외대 졸업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학의 실력을 연상한다. 사회학계도 새로 등장했고나 대학의 명칭과 연혁때문인 것같다.

금년 32세가 되는 편리 탑등 (Tran Thi Damphuong) 여사는 베셍은 월남이지만, 저금은 어엿한 한국의 한 주부가 되었다.

원래 월남의 수도 사이공에 소재하는 Marie Curie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립 사이공 대학 3학년에 적을 두고 있던 탑등여사는 부군 이벽희 (공무원) 씨가 귀국함에 따라 71년 3월 5일 본대학 3학년에 복귀 그리 경학생으로 편입했었다.

비록 낯설고 풍습은 다르며, 피부 색도 다르지만 자신의 성실성으로 극복하며, 본대학 프랑스어과졸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게 된 것이다. 특히 탑등 여사는 불어과에 재학중에도 시간을 내어 본대학 월남어과에 장사로서도 재직중이었는데, 어려운 발도 꿈하지 않는 (여사는 한국어를 해독하지 못한다) 이국방에서 배우는 입장과 가르치는 입장을 훌륭히 견지해냈어 여사의 성실성은 찬사를 받을만하다 할것이다.

전티담풍여사
(32세 월남어과 졸업)



업장은 학생으로써는 게교이해 최초의 일이며, 학위는 없고, 단지 고인의 명적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색졸업생

격랑의 사회로 형을보내며

—이 정 태 (에스빠냐어과2년)

K형!

K형을 떠나 보내야 한다니 시공꿈에목이 잠겨 벌써 K형과의 이별을 상상하니 몸밑은 깊려오는 외로움은 내주위를 휘싸 버린구려 「이별은제외의 기쁨」이라 시기기 위한 신의 계시」라는 말이 불현듯 생각나지만 이 생각도 아서음을 밥때주지는 못하오. 떠남이 형원한 이별은아닌줄 익히 알고 있스만 지금의 내심정엔그런한 얘기도 말아 뉘여지지가입소 항상K형의 체온은 느끼며 포용하고 상아손나에앵 마시 정을 더시는바지 못할 더금한 순간에 씩연했도 정만갈소. 세월의 흐름은 불잡아둠 수만있다면 무슨일인들 못할 것이 있겠소 K형과 함께이별로주저앉아 시간의흐름을 방관할 수 만 있다 하더라도 무슨희생인들 두려워 하겠소 K형이 떠나버린 원빈교정에서 누주 와 입소하여무엇을 의지하여 무엇을 바라며 동고싸움 재촉할 수 있겠오. K형과 함께 쫓삼에 앉아 인생과 학문을 논하며 때론 어려운 문제로 일그려진 나의 입술을 풀땃 게이게 해 주면 뻐가 바로 영그게 제잘은데, 답답에 할려 앉아 미뤄져, 얘기하면 시 상기되 얼굴로 웰된 인정과 이성을 얘기하면 시긴의 어윤이 제 가시지도 않았는데 K형이 떠나야만 한다니..... K형이 나에게 심어주려했던 생활철학의 씨가 제 밭아 (發芽) 도 하지 못한 지공인데 벌써 이별해야만 한다니 나의 가슴은 서글픔에 터져 버릴 것만 같소. 터져 버릴것 같은 나의 심정은 잠도 이루지 주면 K형이 떠나버리면 제정신이 심정을 어떻게 하라고 누구에게 하소연 하라고. 형을 따라 더이어 보고 싶은 것들이 아직 정리도되지 않았는데 자꾸 떠리 사라져만 하오. 형이 나에게 심리 주면 「중앙을 의지하여 무엇을 바라며 동고싸움 귀에서 멀릴고 있는데 형은 이 가슴의 아쉬움과 서글픔을 외면한채 발걸음을 재촉 하고만있소. 또한, 가슴이 벅찰게 같을 뿐는 심흐름을 때 보다면 발을 제 흔자서 실행해 보려도 않았는데 형은 묵묵히 들아 서는 구려. 주위의 모든 시계추를 고정 시켜 보아도 시간의 흐름은 그치지 않고 형과의 이별시각에 바싹 가슴이 조이고 있오. 허지만, K형, 형이 떠나셔야 한다면 우소 수로 형의 발길을은 막을 수 있겠오. 나의 심정만 하소연하여 형의 앞날의 희생을 서글픔을 앞길을 수 있겠오. 형이 떠나시면 가슴의 공허하고 서글픔은 밤새고 잠겠오나 여세 장아 보려오. 형이 항상 일러 주던 심호흡을 되뚜하는데 힘써 보겠오. 허나 이것만은 약속해 주구려. 형의 미래를 밝이오.

나에게 얘기 하던대로 「뜻있는 인생」을 살아 가는 형의 모습을 지켜 볼 수 있게 해주오. 그래서 「이별이 제외의 기쁨을 배가 시키기 위한 신의 계시」라는 말이 진실이라면 다시 만나는 한 뜻 날 나에게 심일을 안겨 주지않게 하기 신의 대 (意力) 하시기를 바라겠오. 제외의 그날을 기약하며, 형의 포표을 실현에 옮기기위한 노력을 나도경솔하게하지 않으리라.

미인회화 · SDA · 미인회화 · SDA · 미인회화 · SDA · 미인회화 · SDA · 미인회화 · SDA · 미인회화 · SDA · 미인회화 · SDA · 미인회화 · SDA · 미인회화 · SDA · 미인회화 · SDA

당신도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수 있다!

원장 배스컴박사

◎정원엄수

접 수 중

개강 : 3월 5일

서울·부산·광주 동시개강

◎전원미국인강사

SDA 영어회화학원

○초보자를 위하여 한인교사가 직접 도와줍니다 — 서울학원

○ 2 월28일까지 등록하시는 분에게는 할인을 해 드립니다 — 서울학원

대광코너7층 정릉리 로타리 동대문

SDA 영어센타

서울 : 대광코너7층 ☎ 97—1275
부산 : 역전빌딩3층 ☎ 6—1036
광주 : (구) 동부출장소

ENGLISH LANGUAGE CENTER

병역법 개정법률 내용

항목	내용	위반자처벌 병역법	위반자처벌 폭조법
제1국민의 신고의무	1. 제1국민역이라 함은 18세가 되는해의 1월1일부터 입영 할때까지의 자를 말함 2. 매년 18세가 되는자는 그해의 12월31일까지 본적지 구청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하여야함	외무불이행자는 6월이하의 징역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	
명령의뢰 발의무	징집소집 명령서를 대민수명권자는 병역의무자에게 즉시 전달할의무가 있음.	6월 이하의 징역또는 3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거주지이동신고의무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였을때는 14일내에 퇴거및 전입신고를 하여야함	1년 이하의 징역10만원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징병증명 처분없이기차단특의무	무종자은 징병증명처분은 5차수검후처분기로된 것을 3차수검후 처분하도록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자는 3년이하의징역(1) 허가내에귀국 않는자도포함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국외여행의제한	병역자및 징병전역자는 처분도는 전역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는 한국외여행을 할수없음 (징병처분없기 부 중인자 포함) 다만 전 징집전역자는 제외		
입영등의제한	1. 모든 고등주는 병역기피자를 입학 혹은 채용할수없고 기피사실이 있는자는 즉시 해고하여야함. 2. 허가, 인가, 면허를 받은자중 기피사실이 있는 자는 즉시 취소함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입안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
방위소집불응	방위소집에 불응한자는 입영기피자와같이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3년이상10년이하의징역 (입영기피자와 동일)
방위소집사회처부	1. 방위소집을 실역복무로 명령하여야함. 2. 면역자 동등하게 직장보장, 군사원호보장, 급식실비 변상등의 혜택이 부여됨, 복무이탈자는 군법처용		
방위소집대상	실역 미필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 대상자를 제한하였음. 소집기간 "2년내를" "3년내"로개정		
근무연장소집일수	"년 1회30일내" 를 "30일내로" 하고 수회로 나누어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예비군간부의 진급및 임용자격 부여를 위한 소집일수도 "80일" 에서 "120일" 로 연장하였음.		
병무행정 처리기관	호적또는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정소년에게도 병무행정을 위임할수있도록 하였음.		

졸업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외대학보사

The Argus

외대방송국

입시장 르뽀

○시험장에 얽힌 갖가지 이야기들○

○…예년의 경우 입시 며칠전부터 고문주위에 나붙던 각 고등학교의 격문이 올해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아 어아한 표정들이었다. 학생계의 말로는 등장생 스스로가 자진해서 격문을 붙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수험생들은 「다소 서운한 것」하긴 예년같이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분위기가 가신것은 좋으나 고문앞에 아무런 표시도 없이 사람들만 붐비는 모습이 수험생들에게 긴장감을 한층 더해주었다.

○…한편 이날 학교앞 다방들은 응원꼰들이 진을치고 있어, 오랫만에 한산한 분위기를 일신했는데, 모(某)다방은 손님들에게 불의아니게 선불을 받을 정도로 붐비 비록 종업원들이 식사를 걸르긴 했지만 다방생긴이래 최고의 매상을 올다고 흔희 (欣快) 한 비명을 지르기도.

○…명소에도 서는 시간이면 만원사태의 파장상은 이날 3,000여명의 수험생과 학부형들로 문자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는 지경. 그래서 고교입을과 학생을은 구멍탑때야 할 수가 없고 좁은 화장실은 엉망진창.

이 광경을 본 한 수험생 왈 「입학시험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이라 쓴 웃음을 짓는 아이러니칼한 심정.(—윤)

○…항상 그렇지만 실력이 어중간한 수험생들은 어느파를 지원할까를 좀처럼 결단못내리고 우왕좌왕하는데…… 훨씬를 써가지고 와서도 지방학파란은 비워둔채 다른 수험생에게 묻기 일쑤고 또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며 최후의 결정에 앞설이기도. 시중에서 상경했는 이는 수험생, 뒤에 서있는 또다른수험생에게 「저, 무슨과를 지원하시나요」라고 은근한 표정으로 물자 대답이 「아무과나 넣죠, 써」 그러자 이 수험생의 부친 (父親) 피는듯한 큰 정보라도 얻은듯 「여아, 너도 아무과나 넣으려므나, 아무과나, 흠 그러니까 아시아지역무역과의 학자였다. 아무과(亞細)…졸업을 마고 집지하게 해가하는동에 식학하려 전수장면 때아니 웃음꽃이 활짝.

○…으직 평장의 만인지에 모든 운명을 걸어놓고 렌글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부드러진 고사장. 앞뜻말뜻하면서도 도시 흘리지 않는 문제, 분명히 본 문제인데 하필 지금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해서 긴장과 초조만이 가득한 고사장. 이러한 가운데 어느 고사장 갑독요로 들어온 모(某) 교수, 시험지가 배부되는 예비시간을 통해 이미 치룬 시험과목에 대한 해설과 전체경향등을 설명, 가득 초조에 굳어졌던 수험생들에게 그럼대로 뿌듯한 자신감을 안겨다주었다는 흐뭇한 후일담.

○…이날, 시험이 끝나자 학교주변엔 각종 쓰레기들이 산재, 저녁무렵의 시장바닥을 연상케 했는데……그 쓰레기들을 치우느라고 낮엔 각 고사장입구에서 학부형들과 수험생들을 격리시키느라 복복히 수문장노릇을 하면 수위아저씨들이 진탕을 뻐기도, 하긴 전형적인 한국인들의 습벽이라니 우린들 쩌라하겠소만.

○…18일이 되자 분명히 19일이 1차합격자 발표일이라고 공고했는데도 무엇이 그리 성급한지 일요일 이면 모처럼의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 했는데. 학부모들은 아침부터 미리 대부분의 과녁을 점령, 점심시간에 다른 수험생들에게 이 자리는 우리 아들 내려오면 앉을자리라 면서 앙보하지 않자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이 응원 안온 피라고 서서 벼기도. 또 어떤 수험생은 김·드렌드를 동원, 여자응원단에 둘러싸여 그들이 준비해온 식사를 하고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게했다.

○…한편 이날 학교앞 다방들은 응원꼰들이 진을치고 있어, 오랫만에 한산한 분위기를 일신했는데, 모(某) 다방은 손님들에게 불의아니게 선불을 받을 정도로 붐비 비록 종업원들이 식사를 걸르긴 했지만 다방생긴이래 최고의 매상을 올다고 흔희 (欣快) 한 비명을 지르기도.

○…명소에도 서는 시간이면 만원사태의 파장상은 이날 3,000여명의 수험생과 학부형들로 문자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는 지경. 그래서 고교입을과 학생을은 구멍탑때야 할 수가 없고 좁은 화장실은 엉망진창.

이 광경을 본 한 수험생 왈 「입학시험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이라 쓴 웃음을 짓는 아이러니칼한 심정. (—윤)

○…항상 그렇지만 실력이 어중간한 수험생들은 어느파를 지원할까를 좀처럼 결단못내리고 우왕좌왕하는데…… 훨씬를 써가지고 와서도 지방학파란은 비워둔채 다른 수험생에게 묻기 일쑤고 또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며 최후의 결정에 앞설이기도. 시중에서 상경했는 이는 수험생, 뒤에 서있는 또다른수험생에게 「저, 무슨과를 지원하시나요」라고 은근한 표정으로 물자 대답이 「아무과나 넣죠, 써」 그러자 이 수험생의 부친 (父親) 피는듯한 큰 정보라도 얻은듯 「여아, 너도 아무과나 넣으려므나, 아무과나, 흠 그러니까 아시아지역무역과의 학자였다. 아무과(亞細)…졸업을 마고 집지하게 해가하는동에 식학하려 전수장면 때아니 웃음꽃이 활짝.

○…으직 평장의 만인지에 모든 운명을 걸어놓고 렌글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부드러진 고사장. 앞뜻말뜻하면서도 도시 흘리지 않는 문제, 분명히 본 문제인데 하필 지금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해서 긴장과 초조만이 가득한 고사장. 이러한 가운데 어느 고사장 갑독요로 들어온 모(某) 교수, 시험지가 배부되는 예비시간을 통해 이미 치룬 시험과목에 대한 해설과 전체경향등을 설명, 가득 초조에 굳어졌던 수험생들에게 그럼대로 뿌듯한 자신감을 안겨다주었다는 흐뭇한 후일담.

○…이날, 시험이 끝나자 학교주변엔 각종 쓰레기들이 산재, 저녁무렵의 시장바닥을 연상케 했는데……그 쓰레기들을 치우느라고 낮엔 각 고사장입구에서 학부형들과 수험생들을 격리시키느라 복복히 수문장노릇을 하면 수위아저씨들이 진탕을 뻐기도, 하긴 전형적인 한국인들의 습벽이라니 우린들 쩌라하겠소만.

○…19일은 아침부터 부산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1시에 발표될 1차합격자명단을 보기위해 몰려온 학생들로 교정은 서서히 북적대기 시작했다.

본사의 전화통은 쉴사이 없이 걸려오는 시외전화로 그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했고 자 부최하다 한번더 확인하려는 학생들로 법접을 이루었다.

이날 어떤 학생은 벌찬에 제시된 명단을 훑어보다가 자기의 수험번호를 발견해이고확인, 그제서야 「붕해만이나. 이제고보 참고서는 모두 아듀」라고 고함을 쳐서 이기도.^

또 어떤 학생은 아무리 확인해도 자기의 수험번호가 없었음인지 어쩌를 혹 내려드린 들꼭은 자세로 댄 피스를 빠져 나가기도.

또 이날 어떤 학생들은 본인은 울두하지 않고 가속이 대신 나와 확인하게 했는데 아마 그 친구 혹 자기가 떨어졌을 경우 「기필코 보란다고 생각한 모양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

이날의 순배자 (?) 들은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등해질는데, 합격한 친구들은 부터 자만하지말고 더욱 분투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보내길……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입시를 목전에 놓고 늘 불안과 초조의 는……◇
◇……빛을 주체하지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속맘과도 같이 입시를 치루……◇
◇……어아 한다. 시험이 끝나고합격자가 발표될 지을 그들은 환희의탄……◇
◇……성을 지르기도 하고 또다시 한해를 가늠하는 비애를 맛보기도 한……◇
◇……다, 기 그들의 속맘과도 같은 고시장들 때에서 주어모은이야기와 입……◇
◇……시경쟁, 각자의 경쟁을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영광에의 발돋움

—수석합격자 인터뷰—

수석 합격의 소식을 전해 듣고 학교로 달려온 김종석(18세, 무덕학과 지원)군을 만나 최고톱집의 영광을 누린 소감을 묻자「미꼬리 문제가 어슨 렌이어서 잘 보았다고는 생각했지만 수석 합격이라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었다.

550점 만점에 총 453점을 획득한 김종석군은 73년 1월 경기고를 준우등으로 졸업한 수재로 중·고등학교 재학시절에도 줄곧 반장등을 맡아 우량상, 좌등상, 개근상등을 자지 한 우수생이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때는 과학부장까지 역임한 활동적인 학생이었다.

한편, 수석 합격의 소식을 전해들었을때의 심경이 어기지 못했던 일이라 덤벨벨 했었다는 김군은 「전기대학 입시에서 어느정도 합격하리라는 기대가 불합격의 현실로 나타나 자기자신을 아주 불운한 사람중 하나」라고 여겼으나 이제수석합격을 하고 보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미 소를 지으며 전기대학의불합격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가 넘짬이 나셨다가오늘의 희보 (喜報) 를 듣고 쓸쓰피셨다고 덧어놓았다.

수석의 영광을 자지한김군은 이번 시험에서 국어과목이 가장 어려웠으나수학은 선택과목인 독어논거의 한점을 맞을 것이라면서, 전기 대학에서의 불운을 설욕한 기분이라며 겸에서도 큰소리치게 피었다고.

또한 면접사이에 8대국회의원이었던 김세배씨의 2남2녀중 장남인 김군은 1955년 서울 태생이며 현재 중앙 아신인대 재 피망은 기업가가 되는 것이나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 정치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취미 생활에 관하여 얘기가 미치자 김군은 피아노와 클라식 기타를 즐겨치며 아버지를 따라 골프장에 여러번 가보았으나 골프는 사치성의 운동이라 학생인 자기로서는 취미생활이랄 수 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졸업에는 면 과외활동을 해보고 싶나고 말자, 「아직 이 학교에 전혀 갈 일지 못하므로 짜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많은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김군의 키는 172㎝이며 혈액형은 O형이다.

전기 실패때의 어머니 병환

……수석 소식듣고 완쾌돼……

이문 Chronicle

○…졸업시즌을 맞아 대학가에는 취직자리를 구하려는 예비학생들로 술렁술렁한 분위기 였는데……당장 취직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학생처및 과담당교수실을 부지럽히며 간장을 태우기도 했지만 반면 일찌감치 취업자리를 얻은 모과의 졸업생은 『우리 과(科)는 학교에 추천장이 날라와도 이미 다 일자리를 얻어 갈 사람이 없다』고 은근한 과(科) 자랑을 펴기도.

○…72학년도 졸업식이 당초 27일로 결정되어 각 매스콤을 통지 졸업생, 재학생및 일반에게 알려졌으나 제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27일로 확정된 관계로 공휴일이 되어 부득이 24일로 앞당겨 다소의 혼란을 야기 시켰는데……역시 본래 교무처 학적과는 졸업관계 사무로 일손이 바빠졌고 학생처는 졸업생 작자에게 번경된내용을 통지하는등 부산했고 본사관 과쟁 역시 쉴새없이 울려 한때 소동이 났다.

○…졸업이 다가오자 학교주변에서 서성이는 졸업생의표정은 각양각색 (各樣各色) , 4년간의 캠퍼스생활을 아쉬워하며 플로 정구장앞을, 프라타나스 나무사이를 거닐며 추억을 더듬어보는낭만파가 있는가하면 입신사원으로써 눈코를새없이 분주한 발아 (忘歎) 파, 허탈한 표정만을 되섰는 근심파, 이렇게 갖가지의 양상을 발견할수 있으나 대학을 떠나는 서글픈 마음만은 매한가지.

○…방학중 학교내의 부엌한 평사로는 벌써 폭기할 만한 사실은 없고 기본적인 학내행정만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왔으나, 운동장, 신축건물 그리고 학문단전들신축공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히 건설붐을 전해들었을때의 심경이 어기지 못했던 일이라 덤벨벨 했었다는 김군은 「전기대학 입시에서 어느정도 합격하리라는 기대가 불합격을 반난못한 인상. 특히 아래운동장을 본 운동장과 같은높이로 벼주는 파업은 그야말로 대규모공사. 덕분에 주변의 경조장 기타 자질구레한 것들이 싸잉어져 훨씬, 넓고 시원한 감을 주긴하였지만 아직도 걸거치 않은 인근 주택들이 골치거리.

○…풍기방학이 시작될 무렵부터 한동안 나붙던 퍼니스코트 피해제보 (訴) 이 잠잠해져 퍼니스에로 학생들은 한숨을 놓았다. 사선인즉학교 체육실에서 학교주변의 외부인사에게 코트출입을 일정시간 허용하고 피비를받아 코트유지관리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학생들만으로도 시설이 부족한형편인 상황이고보면 다소 무리가있는 계획임은 분명한 일. 아무튼 취소가 되었으니 다행스럽군.

○…본대학 상징탑개축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 관심있는 학생들은 일찍부터 시평되었어야할일이라고 제각기한마디씩. 캠퍼스가 확장되고 대학의 정원이늘게 되면 자연 학교외의상징도좀들보여야하지 않겠느냐는 중론이고 보면 일면 당연한 처사이긴 하지만, 거금 상징탑 축대를 높일 바엔 아예공사를 시작할때부터 제대로 해두어야 했을것을.

○…방학중 학생회는 신축교사 내부시설에 학생복지시설을 위한 갖가지 제안을 학교당국에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요구중 대부분이 묵살, 몇개의 요구만이 제대로 해결됨 셈. 하긴 요구하는 것이어쭈 많아 당국에서도 좀이러움질했던 것은 사실인모양이나 그러도 음악강상실과 법학연구실의 확장은반심있는 학생들에게 위지않은 쾌재를 부르게 했다.

영어문제를 중심으로 본 73학년도

입시문제 출제경향

영어:김영조 (영어교육과 부교수) 기타:본사 편집실

영어

외대의 특성 충분히 감안 포괄적이고 다양한 문제 까다로운 지식보다 실용면에 더욱 치중

□영어

금년도 외대영어시험은예년과같이 150점이 배정되어 전체 12문제에 30문항 (1번에서11번까지는 각두 문항씩,12번은 8문항)을 재관식과 주관식을 거의 절반씩 섞어서 만든절충식 스타일이었다 문제의 유형과 수준은 작년과 대개 비슷한 것으로 중고등학교교과과정에서 이수해야할 기초적이고 보편적인문제를 주로 취급했다.

항목별 내용을보면 문제 (1) 에서 (6) 까지는 사지선다형 (四択選多型) 의순차적식으로 말음, 어법, 정오구문 (正誤構文) , 대화음법, 유사문법식별, 숙어선택등의 설문이다두어져있으며 문제 (7) 에서 (11) 까지는 모두 주관식 문제들로서단답식설명형지정어구선형, 유도의문장작성, 부분적인 문장전환등에 걸쳐 수험생들의영어에 대한 생산능력 (Productive ability) 면을 측정하고있다. 마지막 (12) 번은 주어진 장문 (長文) 에 대한 종합문제로서 위의열 가지 항목외에 부분해석이 들어있다.

전체적으로보면 이번 영어시험은 내용면의 포괄성과 문제유형의 다양성을기하여 특히 카다로운 영어지식보다는 평이하고 실용적인 활용면에 치중했다. 육심같아서는 외대의 특성을 미육 감안하여 앞으로는 Hearing을 위시한 Spoken English까지 평가할 수있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싶다.

이번 시험문제가 얼핏보기에는 매우 어려운것 같으나 주장하는 결론이 다음과 같다고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난해도 어부가 반드시 문제의 항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긴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한다.

특히 금년도 본대학 학어문제는 시대적 추세인 작문의 출제를 의면해 가장 큰 덧점을 보였다 할수있으며, 금작스럽 한자문제의 출현은 수험생의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문제 43번같은 경우는 출제의 출제방법 면치 못했으며, 50번 같은 경우는 수험생의 지력 수준을 의면한 안이한 출제방식이라 볼 수 있겠다.

금년의 국어문제를 개관해 본다면 한마디로 과문출제를 의면했으며, 한자문제의 비중을 높였고, 현대난해의 경향을 보였다.

□수학

종래에 인식되어 오던 본대학 수학문제의 면목이 작금에 와서 일신된 기분이다.

먼저 너무 평이 (平易) 한 종래의 문제가 근래에 와서 어느정도 수험생의 수준에 맞게 조정됨 느낌이며, 각 문제들도 수학적 논리를 필요로 하는 참신함을 구비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거의 모든 문제가 4지선다형으로 되어있어 종래의 구각을 완전히 벗지 지는 못한듯한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다.

금번의 수학문제를 개괄해 보면, 수학에 있어 어느정도 새로운 경기가 할 수 있는 순열, 수열, 조합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고교수학의 각 부분에서 고루게 출제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국사

신학과목에서 금년부터 필수과목으로 바뀐 국사는 그 때시인지 예년보단 질적으로 향상된 수준을 보였는데, 금번의 인사문제를 거쳐 보면, 종래의 단순한 암기력 테스트 중심의 문제에서 수험생들의 사고력을 묻는 문제로 향상력 발지를 보여줬다 하겠다. 특히 본 문제 5번, 10번, 17번등은 사고력 테스트적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사적으로 고찰하는 비 력 적의 문제라 보겠다.

그리고 본 문제 그번, 그번, 三번, 四번등은 단순한 외 운으로만 지우치지 않는 현역사적, 사회적 풍향을 묻는 포괄적 의미의 문제로서, 앞으로의 국사 입시가 지향할 만한 것이라 보겠다.

국어 시대 추세인 작문 외면

수학 수학적인 논리 필요

국사 암기보다 사고력 위주

면서도 곳곳에 만만치 않는 함정이 있어 그냥 기계적으로 서불리 다룬 사람은 좋은 성적을 얻지못했다.

앞고트 수험생들의 많은지에 나타난 얘기지 예를들면 우선 Careless Mistake로서 [6] (2)의 경답 Waiting을 Wating으로, [7] (1)의 hasn't 를 haven't로, [12] (5)의 Regards를 Regard로쓴 많은이 많았다. Waiting을 Waitting으로 한 사람의 수도 적지 않았는데 이것은 부주의에서 빠기보다는 모른다고봐야 옳을것이다.

[9] (1) 의 정답 are forced to 와 [11] (1) 의 to swim in- 에서 Particle 인 to와 in을 빠트려버린 많았도많았다. 하나를 알아도 정확한 지식이 아니면 결코 독립과 연결이 되지않는다. 종합에서 1점 또는 0·5의 처로 말학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것을 생각하면그저 안타깝고 아쉽게지기만 하다. [9] (2) 의, not-to Wait와 [11] (2) 의 to have been a big fire 를 올게 적은 사람도적었다. 그리고 [12] (A) , (B) 의 해석문제 를 제대로 쓴 많은 수가 가장 적은듯하다. 이것은 앞으로 대학에서의 전문원서 강독을 위한 능력을 좀 더 충실하게 길러 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해석된다.

□국어

예년에 비해 급작히 난해해진 국어문제를 보고 수험생들이 찌지다나 당황했 금년도 신입생 출신고교별 상황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점을 알수있다.

즉 서울 공립1부고교의 합격자수가 두드러지게 증가되어 공립고교와 사립고교의 차이가 훨씬 저파되었다는 점이다.

경기고, 서울고의 경우, 작년엔 각각 43명, 46명이, 진출하였었는 데 금년엔 72명, 54명이 작자 합격하여 현저한 증가를 나타냈는가하면 중동, 대광, 경남고교의 경우, 작년엔 각각 26명, 22명, 22명이 합격하였으나 금년엔 거의 반밖에 되지 않는 17명, 10명, 11명이 합격되었다는 점등이다.

출신 고교별 신입생 현황

총 835명의 신입생가운데 10명이상을 합격시킨 고교

출신고교	합격자수	출신고교	합격자수
경 기	72	광주제일고	18
서 울	54	보 성	18
이 화	43	중 동	17
경 북	32	제 물 포	16
경기여	25	경 북	16
경 동	22	경 성	14
서울사대부고	22	대 전	13
부 산	22	신 일	12
용 산	21	대 구	12
양 정	19	경 남	11
중 앙	19	대 광	10
진 주	19	동 성	10
숙 명	18	기 타	280

금년도 입시경쟁율 및 과수석

학과	정원	지원자수	경쟁비율	합격자수	경쟁비율	과수석
영어과	95	240	2.5	2.2	2.2	권 훈
프랑스어과	50	91	1.8	2.9	1.6	조형종
중국어과	50	155	3.1	2.3	2.3	서종원
독어과	30	68	2.3	2.6	1.6	박상준
러시아어과	30	125	4.2	1.9	1.9	민동석
에스파냐어	60	180	3.0	3.2	1.9	김정선
일본어과	50	136	2.7	3.0	3.0	이해영
이탈리아어과	30	102	3.4	3.2	1.0	이태호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30	89	2.9	2.0	2.9	유재국
아랍어과	30	78	2.6	3.3	2.6	최효봉
포르투갈어과	30	205	6.8	2.0	6.8	김장림
타이어과	20	109	5.5	2.5	1.0	손동
베트남어과	30	55	1.8	2.9	0.9	이병탄
네덜란트어과	20	216	10.8	1.9	1.9	박노근
힌디어과	30	143	4.8	1.8	1.6	나윤도
터키어과	20	167	8.4	2.1	4.4	김의관
경치외교학과	40	133	3.3	1.8	1.0	고영일
행정학과	30	117	3.9	1.9	1.9	김정부
법학과	30	80	2.7	2.8	0.9	정근
무역학과	40	118	2.9	2.8	1.2	김종석
경제학과	30	86	2.9	4.3	1.9	양종석
영어교육과	20	56	1.8	4.4	1.0	조용
프랑스어교육과	20	53	2.7	2.3	1.2	김면주
도이츠어교육과	20	65	3.3	2.9	1.2	김건복
계	835	2,877	3.4	2.6		

<위 도표의 각과의 금년도 입시경쟁율은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외국어학부는 지난해 경쟁율이 높았던 과가 금년에 경쟁율이 낮아진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러한현포도는 해마다양상이 달라지고있으나 경쟁율이 평균해으로 높아져 어느정도의 질적인 향상을 보였다.

瑞文文庫에 겸친 慶事! 이것은 本文庫의 眞価를 雄辯합니다.

◆ 今年度 文化公報部 選定 優良図書 (11巻)

◆ 今年度 한국 出版文化賞 著作賞 受賞 (1巻)

● 永遠한 世界의 古典, 三國志 드디어 文庫本으로 出刊!!

64 素月詩集 金廷湜作 값 280원
62 盧天命詩集 盧天命作 값 280원
54 투르게니에프 短篇集 투르게니에프 作/金鍾秀 訳 값 280원
53 프랭클린 自殺傳 B·프랭클린 作/崔赫洵 訳 값 350원
52 正義의 사람들 A·カミュ作/方坤訳 값 210원
51 韓國俗談集 韓国民俗学会 編 값 350원
5大特長
1 (足本 三國演義)의 直訳本! 各巻 定価 三五〇원
2 단1회의 加減도 없는 完訳本!
3 迫真力이 넘치는 文章!
4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内容!
5 破格的인 廉価本!
55~60 新訳 三國志 全6巻 金光洲 全訳 〈各巻 360余面〉
現代人 必讀의 綜合教養文庫! 瑞文文庫 이달의 新刊 12巻
瑞文堂 ■매월 5巻 이상의 매력적인 新刊을 発行하는 瑞文文庫, 既刊 50巻 3版 販賣中!!
■供給: 韓国出版協同組合 (72) 5937 (72) 7185 ■全国有名書店에서 人氣裡에 販賣中!!

——신축건물 완공을 계기로 살펴 본

신축교사는 어떻게 쓰일것인가

◇……별관 좌측에 위치한 ◇……도를 살펴 본다. 이 ◇……려면에서 본교생들에 ◇……생들의 노톨자취만 할수있는 물밑한 자치활동을위한 ◇……하나 신축교사의 건립으로 신관에 교수 연구실이 ◇……확장으로 좀 더 학구적 ◇……다.

별관좌측에 위치하는 신축교사가 70년10월30일 기공후 만 2년 4개월만인 73년 2월말 완공되어 신학기 부터 사용 되게 되었다.

기초작업을 마치고 71년 4월부터 외부 골조공사에 들어간 신축교사는 그동안 총 공사비 1억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6층의 크기로 완공, 연건평 2,290평의 면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늘어나는 외래인구가 필요로하는 장외실험 연구실의 수요를 어느정도 충족케 되었으나 기공 당시의 약속이었던 학생복지시설 마련을 미룸한 실정이다.

70년 기공시의 계획에 의하면 지하1층 지상5층으로 5층에는 완전 입체식 대강당이 마련되며 5층을 제외한 자층에는 강의실과 작학부나 교수의 연구실및 참고 자료실, 조사실, 학생복지 시설등을 마련하며 지하실에는 학군단 전계를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계획을 대폭 수정, 지하1층, 지상6층의 크사를 건립하였으나 학생복지 시설은 지하의 일부에만 그쳐 100여평 면적에 불과하며 본대학의 실정으로 보아 필요한 학교의 각종 행사에 사용될 완전 입체식 대강당 계획은 설회되고 70평짜리 방공강의실이 마련되었을 뿐인데 현재 강당이 없어 행사때 마다 본관 107 강의실로서는 장소가 협소함이 수차에 걸쳐 거론되었으며 이학생 실내 체육시간도 수업이 별관 101 피의실에서 행해 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강당 건립이 무엇보다 급선무이겠으나 학교측은 강당 단독 건물건립을 계획중에 있다고만할 뿐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리고, 신관을 1층 도서전을 제외한 전 면적을 완전 시청각연구 센터화한다는 계획은 도서관의 확장으로 인하여 시청각 연구센터가 폐쇄되게 되어 신축교사가 새학기를 맞아 개강됨에 즈음하여 신축건물의 건립 일정및 운영 ◇……의 완공으로 해서 외대인의 안식처가될 휴게실이 거하여 마련되는동여 ◇……학생복지 면에이 거하실에 욱한 되어 있으며 대학 ◇……생들의 노톨자취만 할수있는 물밑한 자치활동을위한 써클룸의 도의시통 많은 문제점도안고있다. ◇……하나 신축교사의 건립으로 신관에 교수 연구실이 마련되어 교수들의 연구여건 마련과 도서전의 ◇……확장으로 좀 더 학구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편집자주>

별관좌측에 위치하는 신축교사가 70년10월30일 기공후 만 2년 4개월만인 73년 2월말 완공되어 신학기 부터 사용 되게 되었다.

기초작업을 마치고 71년 4월부터 외부 골조공사에 들어간 신축교사는 그동안 총 공사비 1억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6층의 크기로 완공, 연건평 2,290평의 면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늘어나는 외래인구가 필요로하는 장외실험 연구실의 수요를 어느정도 충족케 되었으나 기공 당시의 약속이었던 학생복지시설 마련을 미룸한 실정이다.

70년 기공시의 계획에 의하면 지하1층 지상5층으로 5층에는 완전 입체식 대강당이 마련되며 5층을 제외한 자층에는 강의실과 작학부나 교수의 연구실및 참고 자료실, 조사실, 학생복지 시설등을 마련하며 지하실에는 학군단 전계를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계획을 대폭 수정, 지하1층, 지상6층의 크사를 건립하였으나 학생복지 시설은 지하의 일부에만 그쳐 100여평 면적에 불과하며 본대학의 실정으로 보아 필요한 학교의 각종 행사에 사용될 완전 입체식 대강당 계획은 설회되고 70평짜리 방공강의실이 마련되었을 뿐인데 현재 강당이 없어 행사때 마다 본관 107 강의실로서는 장소가 협소함이 수차에 걸쳐 거론되었으며 이학생 실내 체육시간도 수업이 별관 101 피의실에서 행해 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강당 건립이 무엇보다 급선무이겠으나 학교측은 강당 단독 건물건립을 계획중에 있다고만할 뿐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리고, 신관을 1층 도서전을 제외한 전 면적을 완전 시청각연구 센터화한다는 계획은 도서관의 확장으로 인하여 시청각 연구센터가 폐쇄되게 되어 신축교사가 새학기를 맞아 개강됨에 즈음하여 신축건물의 건립 일정및 운영 ◇……의 완공으로 해서 외대인의 안식처가될 휴게실이 거하여 마련되는동여 ◇……학생복지 면에이 거하실에 욱한 되어 있으며 대학 ◇……생들의 노톨자취만 할수있는 물밑한 자치활동을위한 써클룸의 도의시통 많은 문제점도안고있다. ◇……하나 신축교사의 건립으로 신관에 교수 연구실이 마련되어 교수들의 연구여건 마련과 도서전의 ◇……확장으로 좀 더 학구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편집자주>

학생 복지시설 부족한 실정

도서관확장, 교수 연구실 신관에 마련되어

시청각 연구실및 대학원 전부 이전

신축교사 1층의 현재 제1열람실이는 고열람실로 바뀌게 되어 현 참고 열람실자리에 경기 간행물을 비치하여 현 참고 열람실자리에 경기간행물실을 신설할 계획인데 경기간행물실은현재 참고 열람실에 함께비치되어 있는 경기 간행물만을 본부, 열람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편의를제공하기 위함이다. 제2열람실은 학진족소피어 법학연구실이 2층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법학연구실 자리로 전공실과 사식실이 옮기게 된다.

2층에는 무역대학원과비교학원의 신축교사로의 이전과 소멸및 풍구문제 연구소와 풍국문제 연구소가본관 3층 남서측(현 학생생활과 비교원회실) 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풍국연에 제 2열람실이 들어서게 되고 서측면에는 강의실 7개가 마련되며 법학연구실이 211호로 이전하였으며 사운드—라이브러리가 위치하면것에 복수 열람실형태 미니실이 마련된다.

3층에는 제7, 8연이실 습실및 시청각 전계실이장 의실로 바뀌며 제1 T V 교실이 위치하면 자리차장 의실로 쓰여지면 서측면실 부가 11개의 교수 연구실로 바뀐다.

4층에는 제1 영사실이 위치하면 412호실은 제미나 실로 바뀌며 3개의 시청각 연구실과 6개의 언어실습 실험실이 위치하면곳 에 11개의 조교수이상급연 구실과 10개의 전임강사연 구실을 포함 21개의 연구 실이 마련되는데 전임강사 연구실은 현방을 2명씩전임강사가 사용하게 된다.

이로써 신축3 3, 4층에는 32개의 교수연구실이 신설되어 교수들의 연구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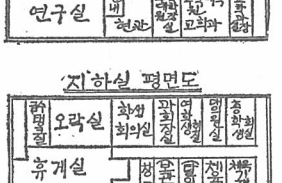
한군단 전용관 본관을 중심으로 위치하고있는 학군단 사무실과 일반 강의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련교육실제의 불합리성과 사무상의 불편을 기하기위하여 학군단 전계실을 신축교사의 지하실로 이전하 려면 방초의 계획이 필요부의 보조에 힘입어 72년 가을 학군단 전용관을 신관 우측에 지하1층 지상4층의 단독전조로 건립하려면 계획을 재정상의 난관에 부딪혀 현재 지하1층과 지상1층만 건립한 채 중단되어 있다.

현재 지하8명, 지상 136명 도합 건평216평의 최하 공사인 이루어진데 중단되어 있는 학군단 전용관을 지하실에 무기고가 들어설 예정이며 공사의 계속여부는 심의중에 있으나 이때로 중단된다면 중전의 모 면강의는 일반 강의실에서 계속될 것이나 학군단전계 사무실과 무기고는 현재건립된 학군단전용관으로 이전하게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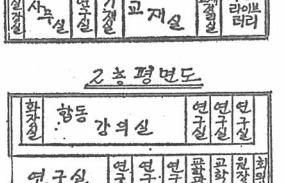
<배>

<신축교사 평면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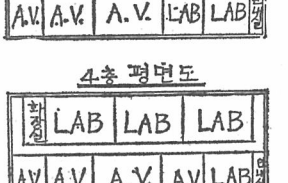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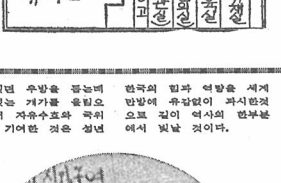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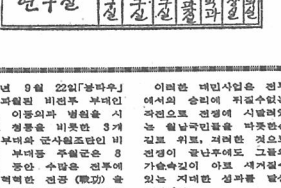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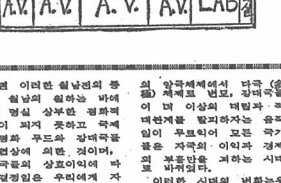
지하실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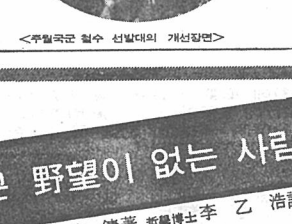
4층 평면도



파월장병 개선환영

파월국군 고국의 품으로

자유수호와 국위선양 하고



<주월국군 철수 선발대의 개선장면>

玄岩社

信義·誠實 서울 特別市 鍾路區 苑洞路 65번13 ☎5421·6/5422·6/5423·6 telex 27710 수표 6284·光·州 ☎5921·大·田 ☎6932

『큰 野望이 없는 사람은 小利에 끌리기 쉽다』

茶山 丁若鏞著 哲學博士 李乙浩譯 ●四六判/本文426面/호화 原色半양장/原色面報/비닐커버, 定價·850원

→現代人을 위한 茶山의

牧民心書

評說執筆陣

文博·延世大教授 洪以燮
法博·弘益大總長 李恒寧
文博·建國大教授 金斗憲
法博·成大法大學長 黃天德
서울大博物館長 李萬甲
東國大安保硏究所長 閔丙天
政博·서울大教授 俞炳烈
中央敎育硏究所長 白賢基
東國大敎授 洪淳鉉
博 士 李炳勇
高麗大敎授 金泳鎬
서울大敎授 高永復
一無順 서울大敎授 朴東緖

■ 本書의 內容과 獨創的인 編輯의 特色

1 流麗한 現代語譯에 걸들여 흥미있고 쉽게 풀 解說를 붙이고, 原典의 大文을 全載하였다.

2 어려운 漢字나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에는 註釋을 달고, 思想的 배경이나 관계된 典故 古事, 혹은 에피소우드를 소개하였다.

3 分野別로 斯界 碩學이 論證한 評說을 싣어서 現代的 意義를 뚜렷이 定立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各界人士 앙케이트에서 斷然 압도적 추천을 차지하다!

지난 9月10日字 「讀書新聞」에 의하면 讀書의 季節을 맞아 各界人士 20人이 권하는 책을 앙케이트로 調査한 결과 《牧民心書》가 단연 70%의 추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이다. 이 조사는 本書가 刊行되기 前에 실시된 것이며, 특히 「民族의 主体的認識」을 높이는 데 있어 全國民 必讀의 書로 강조된 것입니다. —「讀書新聞」 94號 11面

玄岩新書

韓國人: 尹泰林著·424面·800원
文章의技術: 朴木月著·434面·850원
相對性原理: 코·홀먼著·306面·650원
核戰爭: 裏文台譯·312面·650원
未來學: 콜니엘—·352面·700원
人生論: 톨스토이·290面·650원
性과知性: 콜린윌슨·363面·750원
文學을 찾아서: 崔仁勳著·464面·900원
코리언스케치: 張文平譯·314面·700원
京相의科學: 全瑞京編·434面·800원
韓國學: 金元龍外·560面·1200원
牧民心書: 李乙浩譯·426面·850원
明心寶鑑: 李東歡譯·348面·700원

—가나다順 評說執筆陣

演學者·前서울大總長 權五惇
文博·中央大敎授 南廣祐
詩人·演學者 南晩星
詩人 毛允淑
哲博·成大敎授 閔泰植
醫師大敎授 朴魯春
文博·高麗大敎授 朴晟義
延世大敎授 裵宗鎬
詩人·東國大敎授 徐廷柱
崇實大敎授 安秉煜
成大副敎授 安炳周
文博·學術院會員 梁柱東
兒童文學家 魚孝善
哲博·國民大學長 李箕永
錦成女大敎授 池明觀
高麗大敎授 崔相熙
高麗大敎授 傅相璡
東國大敎授 洪淳鉉
法博·成大法大學長 黃山德

↓새價値觀으로 본 明心寶鑑

李東歡譯註(文化財專門委員)

이렇게 살아야 권리가? 韓國人의 人生指針書 그 價値觀의 現代的定立!!

■ 本書의 4大 特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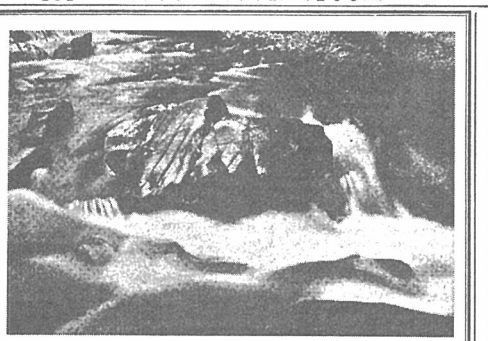
1 가장 신빙성이 있는 《明心寶鑑》의 眞本을 入手, 全19篇을 우아한 現代文으로 번역하였다.

2 漢字의 독특한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譯文 다음에 漢字語의 註釋을 달고 原文을 전부 수록하였다.

3 現代人의 理解를 돕고자 各項目마다 평이하고 독특한 解說를 달았다.

4 各篇마다 그 가르침의 主題에 대해 現代的 각도에서 타당성 여부를 비교·분석하는 斯界 권위자들의 評說文을 수록하였다.

●四六判/346面/호화 原色半양장/銀가보호用紙/카버入·定價 700원



PHOTOGRAPHIC EXHIBITION

우주의 거대한 순환을 원시인간에게 경외감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태지를 일렬던 순간은 영겁 (永劫)으로 사라져버렸고, 불의 작스런 폐온은 공포만큼 떠거를 어루만지며 침묵으로 응축된 산골짜을 해방의 기쁨을 맞은 원효무리(群)의 행렬도 가볍 체현다. 결끝이 녹아내리며 소용돌이치는 골짜 속에서 유년을지는 삶의 장한 피멸을 감격(感閱)할수 있지 않을가?

교 수 수 필

서재를 정돈하면서

이 범선 (교양과정부, 조교수)

중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한 일년 한 일이었다. 그때의 그 생활규칙이 하도 까다롭고 귀찮아서갑갑함이나 비상 하숙으로 슬거 버리고 말았다.

그때 기숙사 생활 중에서 제일 질색이던 것은한 밤에 한번씩 복시에라는 책상서랍 검사였다. 갑자기 종이 울리고 학생들을 모두 복도에 내다 세운다. 그리고는 몇 선생님들이일제히 책상서랍을 뒤지는것이었다. 그야말로 벌벌 기상천외의 잡풍신이가 다나왔다.

먹다만 효력, 고구마, 사과, 그밖것이 가장 많았고 또 좀 큰에를 서랍에서는 담배종초에 성냥, 그리고여자배우의 사진에 심하면주잡한 나체사진까지 뒤어나오는 수가 있었다. 물사나는 아주 이런짜이었으니호박부수리기라면 꼭 붙타도 담배종초나 나체사진이 서랍속에서 나올리는없어 우선 안심이었지만 그때도그게 어련저 싶었다. 말하자면, 아무리 나이 어리고도 학생신분이라지만 개인생활이 부방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고 아마 생각했었으리라.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어떤날 검사가 끝나자 우스운 사건이 벌려졌다. 에들이주를 놓어선 사자선생님의 호명에 나는 아연했다.

「이 범선!」

어쩌다 런 양말을 하필 책상서랍에 처박아 줬었는지 나는 지금도 모른다. 다만 그때엔, 담배나 나체사진을 들킨 에들보다 양말의 주인공인 내가 제일 호되게 책망을 들은 것이 억울하기만 했다.

오늘 나는 내방을 둘러본다. 긴 겨울방학 동안에 게을러질대로 게을러진 내정신상태가 거기그대로 보인다. 신문지가 방구석에수북히 쌓여있고 우편물들이 책상밑에 마구 흐트러졌고 참고하고는 서적들이 제자리로 못들아가고 가로세로 엎드려 있고 심지어는 재떨이가 발랑뒤집혀는데 그건 또 무엇에 쓴 것일가 커다란 의자가 책상한모서리에 턱 누워있다. 그야말로 난장판인 것이다.

나는 혼자 웃었다. 이제나이 오십이 넘어서야 비로소 그때 그 사자선생님이 왜 양말보다 런 양말을 더 아단을 치셨던지를 어슴프레나마 알것 같았던것이다. 물건은 각기 제놀 자리가 있다. 그렇고보니 먼 금지된 담배를 서랍속에 넣어둔 학생보다도 런 양말책을 서랍속에 처박아둔 학생의 정신상태를 더저질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 책상서랍에 처박아둔 너석이 있다」

이번엔 학생에들이 화하하 소리내어 웃었다.

「누군지 아나?」

모두자기 옆의 에들을을 아보았다.

『접가?』

『양말입니다아!』

『그렇다, 양말이다. 그런데 왜 들은 런양말이다』

사자선생님은 양말을 자기 코 앞으로 가져다 냄새를 맡는 시늉을하고 싶을 써주들다. 에들이 킥킥거렸다.

『이렇 책상서랍에 처박아둔 너석이 있다』